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돈황학개론 I

敦煌学概论 I (敦煌學概論 I)-韓國語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 中 科

李 荷 映

2013年 8月



# 돈황학개론 I

敦煌学概论 I (敦煌學概論)-韓國語翻譯論文

指導教授 김 중 섭

李 荷 映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 年 08 月

李荷映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3 年 08 月

## 목차

|                           |        |
|---------------------------|--------|
| 머리말                       | ( 1 )  |
| 제 1장 나와 돈황학               | ( 7 )  |
| 제 2장 돈황학이 중국 문화사에서 지니는 가치 | ( 28 ) |
| 제 3장 돈황 경전권자의 간단한 소개 (上)  | ( 45 ) |

## 머리말

원행패 袁行霈

1)“대가大家의 소책”은 아주 멋들어진 이름이다. 2)“대가”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있다. 하나는 책을 쓴 작가가 대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서라는 뜻이다. “소책”은 분량으로 봤을 때 적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학술적으로 논한다면 가볍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매우 무게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책의 분량은 상대적인 것이다. 요즘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경우에 10만 자 분량의 책 한 권을 소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노자老子나 공자孔子가 살았던 시대라면 어찌 적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총서를 편집하여 출판한 이유는 독자들의 독서 시간은 줄이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보가 넘쳐흐르는 현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지식을 보충하는 것은 이미 필수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만약 지식을 보충할 때 일관성 없이 오늘은 여기에 손을 댔다가 내일은 또 저기에 손을 댔다가 하다가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만약 독서를 보약 먹듯이 한다면 독서할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 총서는 매 권마다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아 독자가 자세히 그 내용을 음미하며 읽어도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또한 독서의 즐거움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보약을 먹듯이 읽어도 좋다. 이런 보약은 그 양은 적고 먹기 편리하며 소화도 잘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검증된 서적과 독자가 인정한 저서들을 모아 인쇄 및 출판하여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다. 어떤 책은 한 때 베스트셀러로 판매 되었지만 지금은 구하기조차 힘들고, 또 과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

---

1) 대가의 소책은 북경출판사에서 출판한 총서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분야와 관련된 저서이다. 총 4편이며 1편은 10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돈황학 개론은 그 중에 3편에 속한다.

2) 중국어에서 “大家”에는 “권위자”라는 뜻 외에 “모두”라는 뜻도 있다.

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가치를 인정받는 책들도 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서적을 모두 찾아내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과학기술과 관련된 서적이 실용성에 편중되어 있다면 시간이 흐른 뒤 이 책을 찾는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과연 과학 기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누가 이런 책을 필요로 하겠는가? 그러나 이와 달리 인문과학과 관련된 서적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총서 모두가 재판본은 아니기에 우리는 유명한 학자를 초청하여 학술적이면서도 보편성을 겸하는 소책을 새로이 쓰고 싶다. 이로써 독자들의 나날이 늘어가는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가의 소책”은 그 크기가 크지 않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나 어디서든 꺼내어 볼 수 있다. 길에서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극장표를 사려고 줄을 설 때, 차 안에서 혹은 공원에서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다. 이런 독자들이 많다진다면 사회에 문화적 색채를 더할 수 있고 학습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으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대가의 소책” 출판을 앞두고 출판사 직원이 나에게 이 총서를 출판하게 된 자초지종을 머리말에 써 달라고 청해왔다. 이 책의 표지에 분명히 소책이라고 되어 있으니 머리말은 짧은 것이 좋겠다. 해야 할 말은 모두 했으니 이만 펜을 내려놓겠다.

## 머리말

시검홍柴劍虹

1900년 6월 22일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 장경동藏經洞의 재발견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장경동이 발견되고 난 후 장경동 안에 있던 대량의 진귀한 고대 사본寫本들은 해외로 유실되기 시작했고 “세계학술의 신조류”를 대표하는 돈황학敦煌學이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돈황에 관심을 갖는 학자가 많지 않았다. 멀리 유럽까지 가서 돈황에서 출토된 권자卷子를 조사한 학자는 불과 몇몇에 불과했고, 그 중에 강량부姜亮夫 선생이 있었다. 선생은 말년에 몇 차례에 걸쳐 나에게 1930년대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돈황 권자를 조사하던 시절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했는데 조사과정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 선생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갔다. 선생은 파리에서 적막함을 벗으로 삼고 세상과 멀리했으며, 여유를 즐길 틈도 없이 책상에 앉드려 종이더미에 파묻혀 지냈다. 의식주 모두 절약하며 지냈고, 정신과 육체가 모두 망가져 갔다. 심지어 선생은 박사학위를 받을 기회도 포기했다. 90년대 초에 선생의 시력은 이미 눈앞의 손가락을 겨우 구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빠진 상태였다. 그러나 나에게 유럽에서 격은 고초를 얘기 할 때에는 선생의 두 눈에서 빛이 났다. 후회도 원망도 없는 모습이었다.

중국에서 일찍이 돈황학을 연구했던 학자들 중 강량부 선생은 가장 먼저 돈황 문화와 돈황학 지식과 관련된 서적을 집필하고 보급시켰을 뿐 아니라(1956년에 출판된 《돈황-위대한 문화의 보고寶庫》가 그 증거이다.) 대학에서 돈황학 강의를 최초로 개설하였다. 《돈황학개론敦煌學概論》은 1983년 선생의 강의녹음을 정리한 것으로 돈황학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국내 최초의 돈황학 교재이다. 강량부 선생은 이 책에 돈황학 연구를 하는 동안 몸소 체험한 경험과 느낌을 살려 흥미를 더했으며, 애국주의 정서와 젊은이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깊이 근원을 파헤쳤다. 또한 이 책은 인류역사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각도에서 돈황학이 중국 더 나아가 세계문화사에서 지니는 가치에 대해 평가했으며, 돈황 문헌과 예술품의 풍부한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돈황 권자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그 분량이 8만 자가 채 되지 않는 소책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학문의 범위가 넓으며 에너지가 충만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다른 돈황을 다룬 걸작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이 소책은 선생이 일생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돈황학을 연구해왔던 것에 대한 결정체이자, 선생이 학문에 임하는 정신과 인격이 드러난 책이다. 선생이 생전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일은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일이었다. 선생은 돈황 문화와 돈황학 지식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며 이 일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것은 선생의 식견이 매우 탁월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황학이 보급되지 않으면 돈황학 발전의 측면에서는 건실히 다져온 기초를 잃게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인재양성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량부 선생은 돈황학 강의를 개설하고 대중적인 간행물과 교재를 집필하였으며, 국내 대학에서 돈황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이 책은 더 많은 학자들에게 “세계학술의 신조류”를 느끼게 하는 유익한 시도이며, 돈황학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절강浙江과 돈황 지역 간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강량부 선생은 운남雲南 소통昭通 사람이다. 젊은 시절 학교를 다니기 위해 북경北京으로 갔고, 후에 유럽에서 국보를 탐방하다가 중국으로 돌아와 교편을 잡았다. 여기 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며 온갖 고생을 다 한 끝에 항주杭州대학에서 교수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절강에 있는 학생들은 행운아이다. 이렇게 저명한 교수 아래서 초사학楚辭學, 돈황학, 언어학 분야의 학문을 갈고 닦을 수 있었으며, 많은 유능한 학자를 배출 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어릴 적에 서자호西子湖 언저리에서 자랐다. 소위 항주 토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선생의 딸 강곤무姜昆武와는 항주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그러나 1961년 북경사범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신강新疆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선생



을 찾아 볼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다시 서북지방 그리고 돈황과 인연이 닿아 여러 차례 선생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특히 나는 선생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잊을 수가 없다. 선생과 나는 어떻게 하면 젊은 학생들에게 더욱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윗세대에서 하고자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과제를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는 했다.

1983년 8월 중국돈황토노변학회中國敦煌吐魯番學會가 난주蘭州에서 창립된 후 강량부 선생을 포함한 저명한 학자들의 건의로 중앙정부에서 학회를 위해 경비를 지원하였고, 해당 자금을 돈황학 자료의 정리, 새로운 학과 개설, 연구 성과의 출판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당시 학회에서는 특별히 몇 만 원元을 마련하여 선생이 돈황학 저서를 출판하는데 보태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줄곧 그 돈을 자신의 책을 출판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고, 오히려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양성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했다. 한번은 항주대학 고적소古籍所의 일부 책임자와 젊은 교수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일에 대해 선생이 흥분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양성해야 하네. 만약 누군가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그에게 능력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네.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가 계속해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 중국 고대의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속담, 속어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외국어,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고대 서역의 소수민족의 언어를 배워야만 돈황학 연구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지”라고 했다. 그 당시 선생의 건강을 염려한 한 교육부 관계자는 선생에게 연구소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 것을 권했다. 그러나 선생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소의 일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였다. 하지만 선생의 이런 모든 행동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순조로운 발전 및 젊은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1994년 여름 항주대학의 몇몇 젊은 교수들과 함께 절강병원에 문병을 갔다. 그 때 선생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시력은 우리를 볼 수 없을 만큼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목소리를 듣고는 이내 미소를 보였다. 그리

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후배를 아끼는 마음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선생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업적은 길이 보전되어 남아있다. 《돈황학개론敦煌學概論》이 “대가의 소책”으로 다시 출판 된 것 역시 선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념이 될 것이다. 18년 전 《돈황학개론敦煌學概論》이 중화출판사에서 초판 되었을 때 나는 운 좋게도 편집장을 맡았다. 북경출판사에 있는 동료가 이번엔 나에게 “머리말”을 부탁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8년 전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선생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 급히 항주로 돌아왔다. 그 때 나는 선생을 위한 애도의 글을 쓰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펜을 들지 못했다. 작년에 강광부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때 나는 《돈황-위대한 문화의 보고》를 다시 읽고 글을 썼는데 결국 글을 마치지 못했다. 이 “머리말”은 그 때 마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2003년 11월 22일

## 제 1장 나와 돈황학

처음에 나는 돈황학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돈황학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고, 연구를 하는데 많은 조건들이 허락되지 않아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힘겹게 연구에 몰두해왔다. 지금 다시 그 때를 돌이켜보니 한편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다. 그 이유는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나마 일을 해냈기 때문이다.

돈황학이 나를 이렇게 매료시킨 데에는 나의 개인적인 흥미 외에도 가정교육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다. 최근 나는 교육과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과학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모든 조건이 해당 학문을 하기 위한 조건과 서로 잘 어우러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선천적 자질이고, 두 번째 조건은 사회 환경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억력이 좋다면 그 사람은 역사를 다루는 것이 좋다. 또 어떤 사람이 이해력이 뛰어나다면 철학이나, 자연과학을 다루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즉 한 사람의 선천적 자질은 그의 가능성, 성과와 매우 큰 연관성을 갖는다. 여기서 나는 나의 타고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선생님, 가족, 친구들은 나의 천부적 자질이 뛰어나다고 말하고는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스스로 굉장히 굶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나의 성격 때문에 겨우 몇 가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나는 평생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못한다. 평생 성실하게 학업에 임했으며 처음부터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며 게으름을 피울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마도 스스로 수치심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공자는 일찍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용감한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학술 연구를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는다. 1930년대 당시 사회적 환경은 매우 열악했는데 나는 그런 악조건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모아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유럽으로 갔다. 그 당시 나는 사회적 지위도 전무했고,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없었는데 나의 우직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아마 돈황학에 파고들지 못했을 것이다. 파리에 도

착하고 10여 군데의 박물관을 돌아본 후 나는 우리의 문물 자료를 수집하고 돌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파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기회조차 포기하고 왕중민王重民 선생을 따라 그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열 구성원 중에 유럽에 있었던 이는 왕중민 선생, 향달向達 선생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전부였다. 왕중민 선생과 향달 선생은 국비를 지원 받고 유럽에 갔지만, 나는 자비로 유학을 간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루는 학술 연구 영역은 비교적 좁았다. 왕중민 선생은 음운학音韻學 연구를 할당하여 나에게 연구하도록 시켰다. 나는 조금 더 나아가 유가경전과 도가경전 등 권자도 연구했다. 어느 누가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귀국하고 싶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이 내 고지식한 성격으로 빚어진 일이다. 내가 돈황학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로 가정환경과 선생님의 교육을 들 수 있다. 나의 아버지는 운남 동부 소통 12주현州縣에서 광복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양계초梁啓超 선생과 장병린章炳麟 선생의 영향을 받았으며, 애국정신이 투철한 분이셨다. 아버지는 평소 나에게 줄곧 애국사상을 가르치셨고, 어린 시절부터 자연 과학 교과서와 같은 과학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하셨다. 아버지가 나에게 끼친 영향은 크게 아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번은 벗짚 더미에 숨어서 《홍루몽紅樓夢》을 보다가 아버지에게 들킨 적이 있다. 그 때 아버지는 나에게 “아들아, 너는 홍루몽紅樓夢을 어떻게 보았느냐? 나에게 한 번 이야기 해 보거라”라고 하셨다. 소설책을 보는 것에 불과한데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소설 속의 인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인물이 있으며 인물들의 다른 점을 설명해보라고 하셨다. 나는 이런 과제를 안고 《홍루몽紅樓夢》을 정독한 결과 그 이후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홍루몽紅樓夢》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나의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일깨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할 길을 알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돈황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이는 불교경전에 흥미를 갖고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유가경전에 흥미를 갖고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이는 역사를 다루거나 혹은 예술을 다루고자 할 것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생각, 생활, 성격을 파악 한 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간다면 수월하게 목표를 끝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의지가 굳지 못하면 어떠한 성과도 거둘 수 없다. 또 한 번은 아버지에게 매우 감동 받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문천상(文天祥)의 《정기가(正氣歌)》를 매우 좋아하셨다. 거의 매 년 한 번씩 이 시를 베껴 쓰셨다. 심지어 큰 병풍에 시를 베껴 쓰고서 벽에 걸고는 하셨다. 그래서 나는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이미 이 시를 모두 외웠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시의 내용을 설명해주셨다. 나의 애국사상이 이처럼 투철한 것은 아마 아버지에게 이런 영향을 받아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에게도 단점은 있다. 우선 나는 매우 고지식해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해방 초기에 나는 한 편의 글도 발표해 본 적이 없다. 사실 직접 글을 써서 가져가도 별로 환영받지 못했을 뿐더러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단점이다. 평소 나는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지만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내왔기 때문에 청년에게 있어서만은 매우 열정적이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나의 성격이다.

내가 돈황학을 연구하게 된 것도 이러한 내 성격과 연관이 있다. 일찍이 사천(四川)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한 선생님께서 나에게 시(詩)와 사(詞)를 가르쳐주어 배운 적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나에게 주장촌(朱彊村)의 《강촌총서(彊村總書)》에 수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집(詞集)이 돈황에서 발견된 《운요집곡자사(雲謠集曲子詞)》라고 알려 주셨다. 이때부터 나는 돈황에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알지 못했다. 훗날 북경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왕국유(王國維) 선생이 어떤 것은 돈황 권자 안에 있으니 가서 살펴보라는 말을 자주 하고는 했다. 그래서 나는 자주 청화(淸華)도서관에 가서 돈황과 관련된 서적을 찾아보고는 했고, 그때부터 돈황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후에 왕중민(王仲民) 선생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돈황 음운학 권자를 연구해보라고 했고, 나는 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나는 권자를 조사하고, 사진을 찍고, 많은 벽화를 살펴 보았다. 폴 펠리오(Paoul Pelliot)의 《돈황도록(敦煌圖錄)》은 나를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 책에서 우리 문화사에 대한 많은 것을 발견했으며, 갑자기 돈황 예술이 좋아졌다. 향전시기에 나는 사천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 당시에 돈황 예술 연구소 준비기획위원회를 결성하고 향달(香達) 선생, 상서홍(常書鴻) 선생 그리고 나 이렇

게 세 사람을 초빙하여 돈황으로 가서 연구 작업을 계획 하도록 했다. 그러나 향달 선생과 상서홍 선생은 돈황으로 향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향달 선생은 돈황에서 돌아온 뒤 나에게 돈황 예술의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돈황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나의 돈황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불러 일으켰다. 그 때 나는 사천 삼대三臺에 위치한 동북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찾을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 나에게 있는 자료라고는 파리에서 찍었던 몇 백 장의 돈황 권자 사진이 전부였기 때문에 돈황 예술을 연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돈황 예술을 연구할 수 없는 바에야 돈황 문서라도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시각각 돈황 예술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오대五代 사람이 쓴 사詞를 읽고 있었는데 작품 속에서 돈황 예술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았다. 전에 한 학생이 나에게 《목란사木蘭詞》에 등장하는 3)“對鏡貼花黃대경첩화”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 학생은 몇 권의 책을 찾아봤지만 해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학생에게 《돈황도록敦煌圖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봤다고 말해주었다. 당唐 말기에서 오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부녀자들은 꽃과 새 모양의 장식을 올려서 얼굴에 치장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비, 모란, 새, 곤충 모양으로 오린 장식품을 얼굴에 붙이고 다녔던 것이다. 후에 온정균溫庭筠의 18수 4)《보살만菩薩蠻》사詞를 연구했는데 돈황 문물을 근거로 하여 온정균의 사를 해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부분이 나의 느낌을 근거로 한 것이었고 정작 그것을 설명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었다. 그 후 삼대에서 3년여 간 연구를 하면서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 집필을 마치고 난 후에야 감성적인 연구에서 이성적인 연구로 전환했다. 즉, 시나 사를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돈황 문물이 중국 전체 문화와 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연구의 방향을 역사와 음운학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 당시 나는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과 《돈황전기敦煌傳記》 집필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돈황왕 전기에서 왕을 타서왕陀西王 이라 칭했는데 장張씨와 조曹씨가 있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주석을 달아 《당서唐書》와 《오대사五代史》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3) 거울을 보며 꽃 치장을 하다.

4) 주로 부녀자들의 치장에 대해 설명한 글



했고, 그 외에 돈황의 과학자와 관련된 전기도 썼다. 역사와 음운학 이 두 가지가 나의 돈황학 연구의 영역이다. 이렇게 나의 연구는 예술품 연구에서 문헌 연구로 서서히 바뀌어 갔다. 하지만 지금까지 돈황 권자를 기초로 어떠한 연구성과를 얻었겠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미 거두어낸 성과들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또한 연구결과를 수정해나갈 것이다.

50여 년 동안의 나의 연구 성과를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이 어찌면 돈황학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나의 연구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교록校錄 작업이다. 이 작업은 돈황 권자를 서로 비교하고 초록하고, 순차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 활동이다. 교록 작업은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록 작업을 마친 자료를 근거로 연구가 진행된다. 하지만 나의 연구는 교록 작업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교록 작업을 마친 적지 않은 자료들이 아직 연구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있다. 물론 이것들 역시 돈황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다.

그 외에 돈황학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돈황에서 발견된 불교경전을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이 통계 자료는 장차 돈황학 연구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나는 돈황 권자 발췌 작업을 했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고증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는 나중에 돈황학 연구를 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돈황 권자는 권자의 폭, 권자의 크기, 권자의 길이, 한 행에 삽입된 글자 수 등에 나름의 법칙이 있으며, 권자를 모두 작성한 뒤 글의 마지막에 누구의 글인지, 누가 번역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남길 때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에 나는 돈황의 고승, 돈황의 사승寫僧, 돈황의 사찰을 모두 정리하여 돈황학 연구자들로 하여금 내가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기록이 없는 권자의 시대를 추측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어떤 경생經生이 쓴 것인지 알면 그 권자가 어느 시대의 것인지 알 수 있고, 또한 어떤 경전에 그 경생의 이름이 있으면 그 경전이 어느 시대에 쓰였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전이 어느 사찰의 것인지는 그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동일한 경전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늘날 돈황 권자 연구자들은 연구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교록 작업 대부분이

참고적 성격을 지니는 것들이다. 내친김에 몇 마디 더 붙이자면 우리처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공구서 집필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공구서와 공구서 편집 작업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나의 스승 왕국유 선생께서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 공구서 편집 작업을 먼저 하셨다. 예컨대 그는 금문金文을 연구할 때 먼저 《송대금문저록표宋代金文著錄表》와 《국조금문저록표國朝金文著錄表》를 먼저 편집하고, 수집 할 수 있는 모든 금문과 관련된 송宋 대, 청淸 대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했다. 그리고 송원宋元 시대의 희곡戲曲을 연구 할 때에는 연구에 앞서 《곡록曲錄》을 먼저 편집한 후, 송 대와 원元 대의 모든 희곡을 조사하여 책 한 권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연구를 시작할 때 이미 송 대와 원 대의 희곡이 어떤 것인지, 최초의 희곡이 어떤 것인지, 가장 늦게 완성된 희곡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작품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 역사적 지리적 관계 혹은 작품과 인물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아주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송원희곡사宋元戲曲史》는 얇은 책 한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멸의 서적이 되었는데, 이는 소소한 모든 것들이 상세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나도 공구서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이 나 같은 전문가가 왜 공구서 편집 작업을 하며 공구서 작업이나 하는 사람이 되었냐며 비웃는 것이 두렵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오히려 공구서를 만드는 것이 나처럼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공구서 집필에 열중했다라면 일찍이 좋은 공구서들이 나왔을 것이다. 한 예를 들면 고힐강顧頴剛 선생은 연경燕京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색인 작업을 했다. 이 색인을 통해 어떤 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완벽하게 찾아 낼 수 있었고, 현재 이 81가지 색인 목록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나 역시 《초사楚辭》를 연구할 때 색인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초사楚辭》에 나오는 각 글자가 총 몇 번씩 쓰였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초사楚辭》안에 어떤 글자가 몇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것이 원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후에 다른 의미로 변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구서 집필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구서 만드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완성해 놓은 것을 베껴 쓴 것도 적지 않다. 나에게서는 유사배劉師培 선생이 쓴 저서의 목록이 있는데, 나는 그가 쓴 책과 문장을 한 줄 한 줄 모두 초록했다. 나는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유사배 선생의 그것을 한 번 훑어 본 후 모든 소재가 준비되면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처럼 공구서는 반드시 집필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 연구소에는 공구서 편집의 중요성을 알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 사람 당 한두 권의 참고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주례周禮》를 연구하는 사람은 《주례周禮》 공구서를 쓰고, 《상서尙書》를 연구하는 사람은 《상서尙書》 공구서를 쓰는 것이다. 이 공구서들은 내가 돈황학을 연구하는 데 뿐 아니라 모든 학문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매우 좋은 기초 자료가 된다. 내 책상에는 한 척이나 되는 서목이 쌓여 있는데 모두 내가 직접 조사한 것들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진정한 돈황학 연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의 돈황학 연구는 확실히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된다.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인 경우 집필 작업을 마친 후 분류하여 발췌 및 조사 작업을 했다. 반절半切, 소운小韻, 대운大韻 등 대여섯 가지의 조사 작업을 하였다. 얼마 전에는 한 연수생이 《광운廣韻》을 읽겠다고 찾아왔다. 나는 공구서를 그 연수생에게 주었는데, 그 연수생은 내가 준 공구서 덕에 《광운廣韻》을 모두 읽고 이해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돈황 권자와 관련된 교록은 크게 아래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경전교록經典校錄이다. 경전교록에는 《시경詩經》 《상서尙書》가 가장 많다. 《시경詩經》 《상서尙書》와 관련된 교록은 거의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돈황 권자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전에 무한武漢대학의 한 교수가 나의 《시경詩經》 교록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사해서 준 적이 있다. 그는 이 자료를 근거로 《정강성모시전鄭康成毛詩箋》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이것으로 보아 나의 교록 자료들이 유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서尙書》 교록 작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시경詩經》 《상서尙書》 외에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주례周禮》 《예기禮記》 등 교록 작업이 남아있는데, 힘에 부쳐 계속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둘째, 제자교록諸子校錄이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 교록 작업을 했다. 그 결과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 돈황 권자의 초록작업을 마치고 정

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만 자 분량의 논문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연구》도 완성했다. 《도덕경道德經》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우선 두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책 이름과 관련된 것이다. 《도덕경道德經》은 현재 우리가 부르는 명칭으로 원래는 《덕도경德道經》이었다. 몇 년 전 산둥山東 은작산銀雀山에서 한漢나라 초기의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당시 사본의 이름은 《도덕경道德經》이 아닌 《덕도경德道經》이었던 것이다. 현재 불리는 《도덕경道德經》은 본래의 이름인 《덕도경德道經》을 거꾸로 읽어 전해온 것이다. 이 사실은 보물과도 같은 발견이다. 내 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는 매우 기뻐하며 편지로 나에게 위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나는 그 친구에게 돈황권자에서 이미 위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 한 가지는 글자 수와 관련된 것인데 《사기史記》에는 《도덕경道德經》이 총 오천 자로 이루어졌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돈황의 《도덕경道德經》권자 중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는 권자가 적지 않게 발견 되는데, 이 글자를 모두 합치면 오천 자에서 한 글자가 모자란 사천구백구십구 자이다. 또 오천 자보다 몇 십 자가 더 된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그렇다면 사마천司馬遷이 오천 자라고 말한 것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95% 정도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돈황권자는 역사서적에 쓰여 있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들은 매우 흥미로운 자료임에 틀림없다. 고대서적을 연구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문제에 봉착한다면 매우 희열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록 작업에 힘을 쓰고 있다.

셋째, 《도덕경道德經》이외의 도가 경서의 교록 작업이다. 불교의 《대장경大藏經》은 모든 불교경전을 망라해 놓은 책으로 이전에는 “대장大藏”이라고 불렀다. 이전에 항주대학에 《가흥장嘉興藏》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가흥이라는 지역에서 새겨진 것으로 《대장경大藏經》 중에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불경은 이삼년 전 중국과학원종교연구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 보관중이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불경은 전국에 오로지 세 개의 판본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모두 훼손되었다. 이 불경은 명명 말에 새겨진 것으로 최초에는 남경南京에서 새기기 시작하여 나중에 항주로 옮겨졌고, 마지막에 절강 가흥에서 완성되었다. 이에 《가흥장嘉興藏》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다. 하지만 본래 명칭은

《경산장徑山藏》이며, 일반적으로 《가흥장嘉興藏》이라 불린다. 《가흥장嘉興藏》의 조판雕版은 일찍이 훼손되었다. 도교에도 이와 유사한 경전이 있는데 송 대 개보년開寶年에 도가의 장경 일부를 새긴 것으로 《도장道藏》이라 불리는 것이다. 《도장道藏》에 수록된 장경의 분량은 매우 많은데, 돈황 권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도장道藏》에 새겨지지 않은 도경道經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한 글을 썼고, 그것이 바로 《돈황본도교일경고敦煌本道敎佚經考》이다. 이 책은 국내 많은 학술계 학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도교와 관련한 나의 교록 작업은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나는 도교에 대해 결코 연구해 본 적이 없으며, 교록 작업과 위 글을 쓴 것이 그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가 쓴 책에 관심을 가져주었고, 또한 나의 교록 작업 중에서도 내 스스로 비교적 만족할만한 책이다. 이 외에도 운서 교록작업을 했는데 운서 교록작업을 할 때 나는 네 가지 자료를 활용했다. 그것은 바로 촬영한 사진, 조사 내용, 요점 정리 그리고 표자료이다. 운서 교록은 내가 최초로 완성한 돈황학 연구 작업이며, 나는 그 자료를 모아 24권에 달하는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을 완성했다. 교록 내용 중에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 한 예로 운서 권자 중 한 권인 왕인구王仁詢 권자에 연지胭脂가 묻어있었다. 나는 연지가 권자에 묻어 있는 것이 이상해서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살펴 본 권자는 대략 육천 여 개 정도인데 그 중에 연지가 묻어 있는 권자는 없었다. 그 때 나는 아내와 사천 삼대에 있었고 아내는 나의 연구와는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 대와 송 대의 서적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 쓰인 책까지 모두 뒤져보았다. 그리고 당 대부터 송 대를 거쳐 명 대까지 한 가지 전설이 전해져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전설의 내용은 당 대 장안長安에 오채란吳彩鸞이라는 여도사가 있었는데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팔기위해 매일 밤 운서韻書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두 사람이 기록했다면 그다지 대수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당 대와 송 대 두 시기에 걸쳐 모두 전해져 왔으며, 심지어 일평생 진실했던 구양수歐陽脩조차 그의 저서 《귀전록歸田錄》에 이 이야기를 언급했다. 이것은 그도 이 전설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말 할 수 있는 근거이다. 나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

각이 들면서 오채란이 이 권자를 베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 대 학자들의 풍조, 당 대 부녀자들의 풍습, 과거제도 등을 연구하여 논문 《오채란서절운사변吳彩鸞書切韻事辯》을 발표했다. 논문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 대 부녀자들은 송 대 이후의 부녀자들처럼 연약하고 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분명 총명하고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며, 이에 부녀자들은 남편이 과거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운서를 적어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당 대에는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로 시를 지어야 했고, 시를 지을 때에는 반드시 5율시律詩를 지어야 했다. 그리고 율시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운을 외워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적어준 운서를 과거시험 장으로 가져간 것이다. 그러므로 오채란이 매일 밤 운서를 썼다는 것은 단지 문인들의 호기심에 의해 의미가 와전된 것이며, 단지 그러한 여인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다. 그 권자의 필적 역시 여성의 것처럼 매우 수려하고 아름다워 남성의 필적이라고 볼 수 없었다. 당 대에는 경전을 조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삼만 권 모두 남성의 필적으로 모두 승려가 쓴 것이며, 오직 그 권자 하나만 여성의 필체였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단지 당나라 사람들이 허풍 떠는 것을 좋아하여 이런 풍조로 인해 당나라 전기傳奇가 이런 신기한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다. 분명 아내가 운서를 조사하여 남편에게 준 것인데,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면서 아내가 “여도사”으로 변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우리는 같은 것을 연구하더라도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와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사에 있어서 발견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돈황 권자 하나만 갖고서도 일평생을 연구 할 수 있다. 전에 한 젊은 친구가 나에게 권자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여 추천해주었던 적이 있다. 그는 그때부터 그 권자를 30년 동안 연구했지만 아직도 연구를 마치지 못했다. 그 권자는 한 사원의 재무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어떤 소작인이 쌀 몇 되를 빌려갔는지,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소작인이 얼마나 갚았는지, 또 어떤 사람이 은을 얼마나 빌렸는지,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일종의 장부와 같은 것이었

---

5) 4운 8구로 된 근체시로 한시漢詩 형식의 하나이다.

다. 나는 그를 불러 당 대 사원의 경제 상황과 당시 전체 사회의 경제 상황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보라고 권했다. 그리고 그는 관련 연구 논문 한 편을 썼는데, 논문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내용이 많이 부족했다. 나는 그에게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 대 승지율(僧祇律)을 이해는 하고 있는지, 당 대 사원의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쏟아 “양당서(兩唐書)”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핀 후 논문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었다. 나는 그에게 비교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문을 완성한 후에는 본인의 논문과 다른 자료들과의 대조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는 아직도 논문을 수정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사에 있어 우리 문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다루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위와 같은 논문 한 편을 쓰기 위해서는 평생 온 힘을 바쳐야한다. 만약 이 논문이 완성되었다면 당 대 경제제도의 중요한 경제 기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문화사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달 선생은 《당대장안과 서역 문명(唐代長安與西域文明)》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는 이 책을 읽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편지를 통해 향달 선생에게 한 가지 사항을 건의했고, 그도 나에게 회신해주었다. 나는 선생의 책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게 책 속 내용 중 이전 사람의 연구를 능가할 만한 몇 가지 문제를 찾아 더욱 깊이 연구하여 앞으로 어느 누구도 그 연구 결과에 더 이상 기타자료를 덧붙일 수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런 글은 두세 편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나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회신에 나에게 본인의 글이 통속적인 책처럼 보이지는 않는지 물었다. 나는 감히 통속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생이 조금 더 상세하고 깊이 있는 한 두 편의 글을 더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선생의 글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며, 완벽한 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돈황학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 칠칠사변 발발이틀 전에 나는 모스크바에서 탈출하여 시베리아와 만주국을 건너 북경으로 돌아왔다. 당시 많은 친구들이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을 만류했다. 나와 함께 도망쳤던 한 사람은 도중에 살해당했지만 다행히 나는 무사했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다. 하지만 북경으로 돌아 올 때 가져왔던 자료는 만주에서 일본인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다. 그나마 돈황학과 관련된 자료와 많은 고고학 자료는 나중에

받아 볼 수 있었다. 북경에 돌아 온 후 나는 북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남쪽으로 피신해야 한다며 북경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나는 북경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북경을 떠나 천진天津에 도착한 그 날 노구교盧溝橋사변이 터졌다. 당시 천진 역에서 역장을 하고 있던 친구 한 명이 나에게 이틀 안에 천진에 또 일이 터질 것 같으니 빨리 천진을 떠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남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친구의 말대로 노구교사변이 점차 확대되어 상해上海지역에서까지 항일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서적과 사진을 가지고 소주蘇州에 있는 작은 여관으로 가서 교감 작업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훗날 내가 돈황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상황에서 이 작업은 내가 돈황학 연구를 하는데 있어 일종의 시험과도 같았다. 나는 해외에서 가져온 모든 돈황학과 관련된 자료와 국내에 이미 발표된 자료들과의 대조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유반농劉半農 선생의 《돈황철쇄敦煌掇瑣》 대조 작업이었다. 그런데 대조 작업 결과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없었다. 유반농 선생의 《돈황철쇄敦煌掇瑣》는 본래 중앙연구원에서 출판한 것인데 오류가 너무 많았다. S.2011 즉, 왕인구간류보결절운王仁昫刊謬補缺切韻만 보더라도 이 권자는 본래 천백 줄 분량의 서적인데 대조 작업 후 발견된 오류만 이천사백 여 개 이상이었다. 나는 이 책의 교정 작업을 마친 후 돈황 권자의 운서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이 나의 돈황 연구 작업 중 첫 번째 작업이었다. 동북東北대학은 북경에서 서안西安으로 그리고 훗날 다시 사천 지역으로 옮겨졌고, 나도 학교를 따라 사천으로 갔다.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의 초고가 바로 사천에서 완성되었다. 꼬박 3년 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은 총 24권으로 당시 상해출판사 사장이었던 정진탁鄭振鐸 선생이 인쇄 작업을 해주었다. 내가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얻은 것은 무엇인가? 중국 고대 운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광운廣韻》을 참고하여 연구한다. 사실 《광운廣韻》 이전의 운서는 모두 산실된 상태이다. 그래서 내 책은 산실된 운서의 공백을 메꾸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나의 또 다른 작품 《돈황지敦煌志》는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인쇄를 할 방법이 없어 결국 나중에 총론 부분을 백화로 수정하여 《돈황 - 위



대한 문화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출판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로 완성된 책이고, 《운집韻輯》은 두 번째로 완성된 책이다. 그리고 《돈황지敦煌志》는 대부분 산실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서안에 있을 때 서안에서 성도成都까지 원고를 보낸 적이 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우체국에서 통지서가 날아왔다. 통지서에는 문서를 실은 배가 한구漢口에서 중경重慶으로 가는 길에 일본 비행기의 공격을 받아 폭파되었다고 쓰여 있었다. 그 때 원고 모두 손실되어 물고기 밥이 되어 버렸다. 그 후에 나는 그나마 남아있는 원고들을 모아 《돈황학논문집敦煌學論文集》에 함께 수록했다. 《돈황지敦煌志》는 일찍이 훼손되었지만 나는 지금도 그 책을 잊지 못한다. 그 이유는 《돈황지敦煌志》에는 돈황 권자 중에서도 6)문학 분야의 권자 및 사료와 사회적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 많은 노력을 들여 완성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항전에서 승리한 이후 나는 상해로 돌아와서야 일본의 승려 오타니고즈이大谷光瑞가 역은 《돈황문집敦煌學文集》을 보게 되었다. 그 책을 보고 난 후 나는 문집의 내용이 부족하여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돈황지敦煌志》가 산실된 것이 더욱더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돈황문집敦煌學文集》을 수정 및 보강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나의 건강상태로 보아서는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보강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이미 이 작업에 대한 계획과 양식을 생각해두었다. 그래서 만약 이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며, 자료도 모두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돈황학논문집敦煌學論文集》은 어떤 책일까? 이 책에는 총 3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상해 고적출판사를 통해 곧 출판 될 예정이다. 이 서적은 돈황학과 관련된 나의 모든 글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엮은 것으로, 상당 부분이 전문연구 논문이고 참고적인 성격을 지니는 글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돈황학사의敦煌學私議》는 돈황학 연구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글이다. 그리고 《삼록三錄》 즉, 돈황 고승의 《명자록名字錄》, 돈황에서 권자를 조사하던 사람의 《명자록名字錄》, 돈황의 《사관록寺觀錄》이 그것인데 우리는 《삼록三錄》을 기초삼아 돈황의 모든 자료를 비교 및 대조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

6) 사詞, 변문變文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인명을 근거로 권자의 시대를 추측 할 수 있고, 사찰의 이름을 근거로 그 사찰이 어느 시대에 존재했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사승의 이름을 보고 그 승려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도 알 수 있다. 즉, 우리는 《삼록三錄》을 근거로 권자의 시대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연구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구 대상의 시대를 정확히 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전에 연구대상의 시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연구를 마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정속자보正俗字譜》에서는 당 대 이전의 모든 운서에는 각각 정자正字와 속자俗字가 모두 적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훗날 문자학을 다룰 일이 있다면 《정속자보正俗字譜》를 통해 정자와 속자를 구별할 수 있다. 이처럼 《돈황학논문집敦煌學論文集》의 적어도 5분의 1은 참고적 성격을 지니는 글들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시 보았던 권자들은 런던과 파리 그리고 베를린 세 지역에 보관되었던 것들로 이 지역 외에 일본과 소련에 소재해 있는 권자는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훗날 누군가가 일본, 소련 더 나아가 다른 지역에 있는 권자를 연구하게 된다면 나의 글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집의 전문연구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운서의 고증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료 연구에 대한 것이다. 사료 연구와 관련된 것은 중요도에 따라 아래 네 편의 글로 나눌 수 있다.

제 1편, 돈황왕 장의조張議潮 부자의 업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이다. 나는 당 대의 자료와 근대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의조 부자의 전기를 썼다.

제 2편, 돈황왕 조曹씨 가문의 몇 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논문이다. 나는 그를 위해 상세한 전기를 만들고 또한 가계도도 작성했다.

실제로 이 두 가문은 중국 역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중국의 서북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변 민족들과의 교류가 많았다. 당 대와 오대 시기에 중국의 중원지역이 타국의 간섭이나 침략을 받지 않았던 것도 장張씨, 조씨 가문이 돈황 지역에서 변방을 지켜주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역사 문화와 많은 관련이 있는 이 두 가문의 전기를 써주어야 한다.

제 3편은 《보補<오대사五代史·방기전方技傳>》와 관련된 논문이다. 돈황 권자 중 과학적 사료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몇 차례나 “曆”



이라는 글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황 지역에서는 그들만의 역법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역법은 매우 특별했다. 이 역법을 만든 이는 적봉달積奉達이라는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이 매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고 이에 그와 관련된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글을 모두 완성하고 난 뒤에야 향달 선생도 적봉달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연락을 취해 적봉달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글을 썼는지 물었다. 향달 선생은 본래 적봉달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 돈황 지역에 적봉달과 관련된 인사 및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 고증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역서曆書에 대해서 그는 아주 조금만 언급했을 뿐 나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연구를 보충 및 보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달 선생이 내 원고를 보고 싶어 해서 원고를 향달 선생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에게 보낸 나의 원고들은 모두 사라져버렸고, 이후에 다시 원고를 복구하려고 했으나 문화대혁명 시기에 모두 손실되어 겨우 몇몇 조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후 나는 이 글을 완성하기 위해 중국 역대 역사와 사서史書를 뒤져보는 도중에 적봉달이 쓴 역서의 특징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송대 이후의 모든 역사에는 적봉달이 만든 역서의 성과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 글이 중국문화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이에 힘써 이 글을 보충했다.

제 4편, 문학과 관련된 논문이다. 돈황 동굴에서 유송劉宋 시대에 승려 지건智騫이 쓴 훼손된 권자가 발견되었다. 그는 초나라의 발음으로 《초사楚辭》를 표기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의 이 권자는 국내에서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는 권자가 되었다. 그 중에 왕중민 선생이 최초로 이 권자를 연구했는데, 그는 연구 논문의 머리말만 썼을 뿐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다. 이 권자에 대해 깊이 연구한 사람은 문일다聞一多 선생과 주조모周祖謨 선생이다. 문일다 선생과 주조모 선생이 연구를 하던 그 당시에는 그들이 쓴 글을 보지 못했고, 해방 이후 항주로 가서야 나는 그들의 글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이전에 비록 문선생의 글을 본 적은 없지만, 그가 나에게 글에 대해서 이야기 해준 적은 있다. 그때 그는 서남연합대학에 있었고, 나도 서남西南 연대聯大가 있던 곤명昆明에 있었다. 그는 나의 글을 읽고 난 후 그다지 유쾌해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글과 나의 글에는 상당부분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는 나대로 그는 그대로 연구하

자고 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의 글에는 그 나름대로 그의 장점이 잘 드러나 있었고, 또한 내가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나의 글에도 나름 나의 장단점이 드러나 있어 나는 내가 쓴 이 글을 남겨두기로 결심했다. 4년 전 《사회과학社會科學》이라는 잡지의 창간호에 내가 쓴 글이 실린 적이 있었다. 편집자가 글을 실으면서 글에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부연설명에는 나의 글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세 가지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집자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지건의 권자이다. 당 대 이전에는 이 권자를 너무 과대평가하여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다. 문선생과 주선생도 당 대 이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건의 권자를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를 부정했다. 이는 독창적인 견해가 아니다. 이 권자는 단지 글을 쓸 때 문장의 체계를 잡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었을 뿐이다. 아울러 후에 《초사楚辭》를 연구할 때 중요한 참고서적으로의 용도가 있을 뿐이다. 이 책 이전에 사람들은 모두 유가의 입장과 관점에서 《초사楚辭》를 읽었는데, 승려 지건에 이르러서는 다른 학설, 《산해경山海經》 《목천자전穆天子傳》 등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을 통해 《초사楚辭》를 고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써 《초사楚辭》연구에 또 다른 학파가 형성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 《사회과학社會科學》의 편집자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애돈황운집瀛涯敦煌韻輯》에 운서와 관련한 한 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절운계통切韻系統》 바로 그것이다. 나는 이 글을 발췌하여 《돈황학논문집敦煌學論文集》에 수록했다.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국내에서 이미 유실된 《절운切韻》이 돈황 권자에서 발견되었으며, 몇몇 권자가 육법언陸法言 원서의 초사본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음운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운집韻輯》을 발표한지 곧 30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국내에 이 서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이 책을 완성하고 나서 《광운廣韻》과 대조 한 뒤 한 가지 결론을 얻어냈다. 그것은 《광운廣韻》은 송 대 사람이 당 대 학자들의 학설을 마구잡이로 모아서 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광운廣韻》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나의 대담한 발언은 사람들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만약에 나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면 《광운廣韻》의 가치를 인정하겠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나의 책이 유용한 것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학설에 동의하길 바라지는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의 학설에 반기를 들었으면 한다. 그래서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이가 있다면 나의 주장은 틀린 것이고,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나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이 되며, 이렇게 하여 하나의 정론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나의 《돈황학논문집敦煌學論文集》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이 책은 내가 돈황학 연구를 하면서 쓴 세 번째 서적이다.

나의 네 번째 책은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권자 연구》이다. 《노자老子》와 관련된 권자 중 내가 보았던 권자는 거의 모두 완전한 것이었으며, 일본과 독일에는 없고 프랑스와 영국에만 보관되어있다. 좋은 권자는 펠리오가 모두 가져갔다. 펠리오는 한학漢學을 매우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며, 그가 가져간 권자는 모두 정교한 것들이었다. 나는 그를 질투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그 이유는 그는 매우 진지하고 치밀하게 학문에 임하는 사람이며, 독서량도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장경동의 권자를 훔칠 때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사진 속 그는 동굴에 쪼그리고 앉아 촛불에 의지한 채 경전 하나하나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나중에 그는 나에게 그가 동굴에서 가져간 권자들이 돈황에 있는 권자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날 우리가 돈황 권자를 연구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있는 권자를 기본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사회 분위기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다.

돈황 권자의 재질과 먹색 그리고 권자를 쓰는 상황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도덕경道德經》이 쓰여 있는 권자들의 재질은 매우 정성을 들인 것들이며,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 상당히 견고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 천여 년이 지난 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꺼내어보면 종이에서 삭삭 소리가 날 정도로 양호하다. 그리고 권자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정성껏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서첩들 중에는 돈황의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에서 따온

것들도 적지 않다. 불교경전 권자의 뒷면에는 항상 대단한 사승의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덕경道德經》 뒤에 쓰인 사승들은 모두가 매우 유명한 승려들이며 심지어 몇몇 문서에서는 고승들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다.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개 종교의 싸움이 매우 심각했던 시기에 승려가 《도덕경道德經》을 초사했다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당 대 제왕들이 스스로를 노자의 자손이라고 자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제왕들이 노자를 숭배함으로써 그것이 당시 사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혹시 승려들에게 《도덕경道德經》을 초사하도록 독려하지는 않았을까? 분명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道德經》 권자의 초사 수준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 내용에서도 흠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한 글자에 문제가 생기면 황색 염료를 이용해 지우고 난 후 다시 수정했는데, 이런 흔적은 유가경전에서 간혹 발견될 뿐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도덕경道德經》 권자의 양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돈황에서 《도덕경道德經》 외에 또 다른 도가경전이 발견되었는데, 《도덕경道德經》과는 달리 대충 쓰여 있었다. 예컨대 《장자莊子》는 육조六朝 시대 이후에 《남화경南華經》이라고 불리며 《도덕경道德經》과 함께 숭상되었다. 그러나 권자의 재질, 필체 그리고 교감에 있어 《도덕경道德經》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도덕경道德經》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아래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당태종唐太宗 이후 도가의 세력은 점차 커져갔고, 불교 내의 부패도 심해져갔다. 많은 사찰 안에서 사병과 기생을 두기 시작했고, 승려들은 날이 갈수록 거만해지고 난폭해져 갔는데, 당 대의 많은 문헌에서 이러한 사실의 증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도가에서는 이런 일이 드물었다. 도가가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백성들의 도가에 대한 신앙심은 그대로 지속되었지만 그에 반해 불심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 시기에 불가와 도가는 서로 공격을 서슴지 않았으며 서로 적대시 하였다. 사실 도교의 경전 중 많은 부분이 불경의 내용을 베껴 쓴 것인데, 이는 도가경전에 불경의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불교경전의 내용이 도교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불교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오대 말에

이르러 도교는 최고의 성행기를 맞이했고, 이로써 《도덕경道德經》이 매우 정성껏 쓰였다는 것은 불교와 도교 자체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두 가지 연구 결과가 더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겠다. 하나는 유가경전의 편집과 연구에 대한 성과이다. 나는 《상서尙書》와 《시경詩經》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는데, 《시경詩經》에 대한 연구 내용은 《돈황학논문집敦煌學論文集》 안에서 이미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현재 전해오는 《시경詩經》은 돈황본의 《시경詩經》과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전해지는 《시경詩經》은 주석가들이 달아놓은 주석을 수집한 것으로 《시경詩經》을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편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황본과 어법과 문자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전해지는 《시경詩經》은 빨라야 송 대의 각본刻本으로 송 대 사람들이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돈황 권자의 《시경詩經》과 《상서尙書》안의 많은 글자들은 지금 전해지는 판본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 수준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돈황 권자는 통속적이지 못했다. 송 대 사람들이 《시경詩經》과 《상서尙書》를 읽을 때 원래의 각본을 보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해하기 쉬운 글자로 바꾼 것 같다. 이렇게 수정 작업을 거치고 난 후 그 수준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돈황 권자의 《상서尙書》《시경詩經》을 근거로 현재 전해지는 《상서尙書》와 《시경詩經》을 비교했는데, 비교해보니 연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국내 학자들 중 《상서尙書》《시경詩經》의 돈황 권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는 시간적 여유가 되어 몇몇에게 《시경詩經》 권자를 조사해주었다. 황작黃焯 선생에게는 《시경詩經》을 고힐강 선생에게는 《상서尙書》를 조사해주었다. 그런데 현재 고힐강 선생의 《상서尙書》와 관련된 논문에 내가 주었던 내용은 인용되지 않았다. 아마 그 분량에 제한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다. 나는 나중에 힘이 닿는다면 고힐강 선생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워 넣고 싶다. 만약 힘에 부친다면 학생을 지도해서라도 나를 대신해 나의 뜻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또 다른 연구 결과는 곧 상해고적출판사를 통해서 선보일 《막고굴연표莫高窟年表》이다. 본래 70만자 원고의 분량이며 앞부분에 200여 개의 그림이 더 있다. 이 그림들 모두가 막고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막고굴연표莫高窟年表》의 초고는 붓으로 쓰였는데 매우 질서정연하게 쓰여 있다. 만약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 이 초고를 필요로 한다면 난 기꺼이 도서관에서 소장 할 수 있도록 기증할 것이

다. 사실 내가 직접 소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나는 원래 돈황 권자 중에 연대가 있는 것들을 연대별로 정리를 하여 이 책에 쓰려고 계획했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용이하게 각 시대의 기풍을 알 수 있고, 각 시대마다 서로 어떤 경전을 더 중요시 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현종唐玄宗 시기에 《금강경金剛經》과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은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졌지만, 다른 시대에는 그렇게 중요한 경전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쓴 목적 중 하나이다. 또 다른 목적은 중국역사에서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덧붙여 넣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당현종 시기에는 유가, 불가, 도가가 서로 어떻게 힘겨루기를 했을까? 라는 의문에 대해 나는 사료에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 당현종 시대 돈황 권자 뒷부분에 사료를 덧붙이는 작업을 했다. 예컨대 당현종 시대에 황제가 직접 《금강경金剛經》《효경孝經》《도덕경道德經》에 주석을 달았는데, 이것은 황제가 유가, 불가, 도가를 서로 화합하여 국가가 그 아래서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료들을 찾아 모두 관련 돈황 권자의 뒤에 덧붙였다. 또 어떤 권자는 서예가 왕희지王羲之가 활동했던 시대의 것인데, 나는 왕희지의 생졸년, 그의 생애 업적 그리고 그가 썼던 《난정서蘭亭序》를 모두 초록하여 권자의 뒤에 첨부 했다. 이 외에도 어떤 권자에 어느 시대에 승지율이 반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승지율의 자세한 내용을 권자 뒤에 덧붙이는 작업을 했다. 또한 어떤 권자는 한 일본인에 의해 상세하게 고증되었는데, 나는 그 고증된 글을 번역하여 권자의 아래에 첨부했다. 이렇게 해서 첨부된 자료는 점점 많아졌고, 중국문화사를 이해하는데 이 자료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출판사 직원이 책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다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록을 모두 삭제하여 책을 간단하게 만들었다. 이에 결국 몇몇 돈황 권자만 남게 된 것이다. 《막고굴연표莫高窟年表》 역시 살점은 모두 빼고 골격만 남겨졌다. 그래서 도서명도 부득이하게 《막고굴자료편년莫高窟資料編年》이라고 고쳤다. 하지만 이제 당시 삭제했던 부록은 모두 망가져버렸다. “문화대혁명” 때 몇 차례나 가택수색을 당하면서 원고도 몰수당했다. 아마 원상태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당시 삭제되었던 훼손된 원고를 상해고적출판사에 보냈고 올해 바로 출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현재 참고서적의 역할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을 볼 때 먼저 색인 부분을 열어서 찾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살핀



후 내 저서들을 본다면 취약점을 나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해고적 출판사에서 이 책의 인쇄를 도와준 것과 출판사가 보여준 학술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요약해서 보면 나의 연구 성과는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특별히 대단한 것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나와 같은 세대의 향달 선생과 왕중민 선생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나의 스승 왕국유 선생, 진인각陳寅恪 선생과는 수준 차이가 더 많이 난다. 나의 가장 큰 단점은 계획 없이 여기저기서 일을 벌이는 것이다. 이제 그것들을 수습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 중국은 모든 면에서 발전하고 있어 향후 돈황학에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단지 경험이 풍부한 늙은 말에 불과하다. 늙은 말은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없어 더 이상 쓸모가 없지만, 이 길은 내가 이미 어느 정도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오르는지, 어떻게 강을 건너야 하는지 알려줄 수는 있다. 내 여력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제 2장 돈황학이 중국 문화사에서 지니는 가치

이번에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중국 문화사에서 돈황학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 대 이전이고, 두 번째는 당 대까지이다. 그리고 당 대 이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주요 내용은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 인도 철학이 중국으로 전해진 후 중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중국 문화가 인도의 사상을 흡수한 후 어떠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나는 중국 문화사에 3차례 큰 변화와 3개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시기는 춘추春秋 시대이다. 고고학적 관점에서 하夏, 상商, 주周 시대의 사료는 대부분이 매우 정확한 편인데, 하, 상, 주 이 세 나라의 유사한 문화가 대대로 전해 내려와 춘추시대에 하나의 문화로 결합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하, 상 두 나라가 존재했던 시기는 반부문명사회로 진입하던 때로써 두 나라가 황하 유역을 근거지로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황하 유역은 서쪽으로 지금의 신강, 칭하이青海, 서장西藏에서 시작하여 동쪽 지역 산둥, 하북河北까지 이어진다. 주나라는 본래 서쪽 민족을 그 기반으로 한 국가로서 하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나라는 중국 북방 지역에서 서쪽으로 조금 치우쳐있는 지금의 섬서성陝西省과 감숙성甘肅省 사이의 민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 왕조 역시 섬서성과 감숙성 사이에 거주하던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 한 후 동쪽에 자리 잡고 동방 민족인 은殷 민족과 세력다툼을 했다. 주나라 자체는 하나라 문화를 기초로 은나라 문화를 흡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서尙書》에 기자箕子가 무왕武王에게 《홍범洪範》을 설명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림자이다. 내가 이 기록을 그림자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홍범洪範》의 많은 부분이 사실이면 서도 또한 많은 부분이 거짓이어서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홍범洪範》에는 하나라에서 은나라까지의 중요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모두 기록되어 있다. 주나라 이후의 문화 역시 대체



적으로 《홍범洪範》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주나라 사람은 그들만의 특색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주나라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주나라는 하나라 문화를 받아들여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확립했다. 이것이 바로 종법宗法이다. 주나라 이전은 씨족사회 혹은 씨족사회 초기 단계로 종법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주나라에 이르러 종법사회가 정착하게 되었다. 종법사회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는 왕권 세속 문제 즉, 적자 계승 문제이며, 또 하나는 재산 상속 문제였다. 하상夏商 시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 주나라에서는 부친이 세상을 떠나 후 왕위는 반드시 아들에게 계승되었는데 그 아들은 반드시 장자여야 했다. 그리고 모친이 반드시 왕후여야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 모친이 첩인 경우 그 아들이 아무리 장자라고 해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왕위를 계승하고, 왕위를 계승한 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군이라 할지라도 천하는 그의 것이며, 폭군이라 할지라도 역시 천하는 그의 것이었다. 이렇게 가정에서 왕위 계승에 있어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국가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무왕은 천하를 얻은 후 어린 성왕成王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국가 초기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다행히 주공周公이 섭정하게 되었고, 이에 후대 사람들은 주나라가 종법제도와 정치제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공의 덕이라고 말하고는 했다. 아마도 주공은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설령 주나라로 잡혀온 은나라의 포로가 주나라의 왕족과 항복한 은나라 유민들과 결탁하여 왕위를 도모한다 하더라도 왕위를 쟁탈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결탁하여 왕위를 빼앗으려 한 것일까? 그것은 하상 시기에는 꼭 적자嫡子가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왕위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나라에 접어들어 적자만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으며 설령 그가 품성이 좋지 않더라도 그에게 왕위를 계승했다. 왕위가 결정되면 내부의 쟁탈도 발생하지 않았다. 왕위가 결정되면 국가의 모든 재산도 그에게로 돌아갔다. 소위 7가천하家天下가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국 역사에서 몇 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주나라 때 황제가 제후들에게 토지와 작위를

---

7) 왕위를 세습함으로써 천하가 한 나라의 천하가 아닌 한 사람의 천하가 되는 것을 뜻한다.

하사 할 때에도 이 제도를 적용했다. 국가는 천하의 주인으로 대종大宗이라 했고, 제후들은 소종小宗이라 했다. 그리고 제후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대부大夫들과 다시 대종과 소종의 관계를 형성했다. 제후는 능력이 있는 대부들에게 봉읍을 하사하였고, 대부들은 다시 그 봉읍의 대종이 되었다. 이 제도는 점점 아래로 확대되어 천하를 하나의 혈통으로 통일시켰다. 그리고 혈통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은 이 제도를 침범할 수 없었다. 주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로 이 제도와도 큰 연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유가사상, 도가사상, 묵가사상 등이 형성되었고, 주나라의 이런 제도 아래에서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사상을 취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다. 종법 제도는 민간 풍속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종법제도가 자리잡기 전에는 한 집안에서 재산을 가지고 아들들이 다투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국가의 종법제도가 민간에까지 전해져온 후에는 이것이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런 과정들은 모두 춘추 시대에 발생했다. 춘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공자와 노자를 꼽을 수 있다. 공자는 유가사상을 노자는 도가사상을 형성했는데 그들은 중국 문화를 그들의 학설에 흡수시켰다. 공자는 인륜人倫 즉, 오륜五倫을 제창하였고, 노자는 “무쟁毋爭”을 주장하였다. “무쟁”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노자 시대가 바로 춘추春秋 전국戰國 시대로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였다. 노자는 다투지 말 것을 제안하였고, 유약함을 사람됨의 기본으로 삼고, 다투지 않는 것을 사람됨의 방법으로 삼아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자는 종법 제도를 유가의 인륜 제도로 재정리하여 유가의 도덕 범주를 형성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것으로 이 명분을 기초로 사회를 안정시켰다. 봉건 제도의 통치 계급층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유가사상을 받아들이고, 이를 사회조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그러나 도가사상은 몇몇 성인들에 의해서만 그들 일생의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여졌을 뿐이었다. 이 두 가지 사상은 중국 문화의 사상체계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다.

둘째, 유가는 한漢 대에 이르러 더욱 성행했는데, 진시황秦始皇의 천하통일과 한무제漢武帝의 백가百家 배척이 그 주된 이유이다. 한무제는 백가를 배척하고 육경六經을 표창하였으며 사사로운 사상은 취하지 않았다. 한 왕조는 고조高祖 때부터

효로써 천하를 다스려왔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한 왕조 성립의 근간이 되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잘 융합되어 한 왕조의 주요 정치 수행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 풍속에서도 주된 흐름이 되었다. 한무제 이후 갑자기 정통 유가사상에 맞서는 사상이 생겨났다. 소제昭帝, 선제宣帝, 현제玄帝, 성제成帝 이후 소위 금문학 今文學이라는 학문이 출현한 것이다. 한무제가 백가를 배척하고 난 후 백가사상가들은 조정에 발을 디울 수 없었고, 결국 민간으로 숨어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그들은 금문학의 학설을 근거로 많은 서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참위학 參緯學이다. 참위학은 크게 성행하여 한고조가 만들어 놓은 틀을 모두 뒤엎을 정도였다. 하지만 유가는 여전히 한무제의 지지 하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유가경전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이에 유생들은 금문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금문학자들은 금문학도 공자로부터 나온 학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공자가 언급한 국가 정부법령과 관련된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이때부터 금고문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무제 이후 특히 선제 시대에 점차 도가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도가의 8) 청허자수 淸虛自守 도리는 황제로 하여금 청허로써 자수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안정시키고 태평성대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했다. 금문학과 도가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금문학의 많은 부분을 도가에서 베껴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금문학자는 천문, 종교, 미신 등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소제, 선제 시대에 와서는 그들의 목적을 거의 모두 달성하였다. 하지만 세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광무제 光武帝 집권 후 광무제가 참위학을 반대하면서 금문학은 붕괴되었다. 그리고 고문학 古文學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왕조의 정치사상과 민간사상에도 다시 유가의 인륜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동한 東漢 시기에 불교가 이미 중국에 들어와 서서히 중국 사대부와 민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 전해진 불교는 석가모니의 종교가 아니라 인도의 오랜 종교였다. 그들은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불교를 전파하였다. 한 왕조에 선비들은 노자를 매우 존경하였는데, 이에 한 말과 위진 魏晉 시대 사이에 도가는 최고의 성황기를 맞이했다. 혜강

8) 깨끗하고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지키다.

嵇康, 완적(阮籍)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사령운(謝靈運)과 도연명(陶淵明)도 도가사상에 심취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아니었으며, 가장 중요한 경전도 모두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 때 절강 지역의 평양(平陽)이 아닌 산서(山西) 지역의 평양 사람이 있었는데 법현(法顯)이라는 승려였다. 세속에 있을 때는 공(孔)씨 성을 썼다. 그는 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인도로 가서 경전을 찾았고, 중국 최초로 인도에서 경전을 구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경전을 얻는데 8, 9년이 걸렸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 《불국기(佛國記)》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기행문 서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져버렸다. 그는 인도의 계율(戒律) 《마가승지율(摩訶僧祇律)》을 번역했다. 인도 철학은 크게 경(經), 논(論) 그리고 율(律)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율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당 대에 이르러 십계(十戒)가 성립되었고, 이때부터 중국에 율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북쪽의 승려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율을 배웠고, 인품과 덕을 높이 쌓아 고승대덕(高僧大德)이 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잠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다. 법현이 배를 타고 귀국하는 길에 바람에 떠밀려 우연히 미주 멕시코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Columbus)가 아닌 법현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대로 회항하였다. 《불국기(佛國記)》 안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기록이 상세하지는 않다. 현재 멕시코에서 법현이 남겨놓은 유적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 유적에 대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정작 중국에서는 아직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다. 과거에 상무인쇄관에서 《서유기(西遊記)》를 번역하여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게 되었다. 만약 고서점에서 그 책을 발견한다면 서둘러 구입하는 것이 좋다. 《서유기(西遊記)》는 중국 문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현이 미 대륙을 발견하고 난 후 미 대륙은 개발되기 시작했다. 현재 멕시코 국민의 정서나 풍습에서 중국과 흡사한 점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법현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그가 중국 문화를 미 대륙에 전파시켰다. 법현부터 시작하여 인도로 가서 경전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다. 인도의 고승대덕들도 경전을 갖고서 끊임없이 중국으로 건너왔고, 큰 경전도 가져왔다. 중간에 관계가 가장 깊은 당 대

는 제외하고, 당 대 이전의 승려는 십공<sup>什公</sup> 혹은 나공<sup>羅公</sup>이라 불린 구마라습<sup>鳩摩羅什</sup>이 분명하다. 그가 중국으로 온 후에야 중국에 삼론종<sup>三論宗</sup>이 생겼다. 삼론종이란 《십이문론<sup>十二論門</sup>》《백론<sup>百論</sup>》《중론<sup>中論</sup>》 세 개의 경전을 말한다. 실제로 삼론종은 논리학과 중국의 인식론<sup>認識論</sup>을 결합한 것이다. 이때쯤 중국의 철학사상은 더욱 체계화 되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논리학은 명학<sup>名學</sup>이라고 불리었기는 했지만, 인도의 명학만큼 자세하지는 않았다. 명학은 인식론과 결합된 이후 인명학<sup>因明學</sup>이라고 불려졌다. 얼마 전 신문에 중국이 인명학회를 창립하여 연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 내가 알고 있는 종교 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이미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령 인명학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면 논리학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구마라습 이후에도 인도의 큰 경전들이 하나씩 유입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천태종<sup>天台宗</sup>의 《법화경<sup>法華經</sup>》이다. 수<sup>隋</sup>나라 초 지의대사<sup>智顛大師</sup>는 천태산<sup>天台山</sup>에서 《법화경<sup>法華經</sup>》《대지도론<sup>大智度論</sup>》《열반경<sup>涅槃經</sup>》을 강연하였다. 그는 우선 《법화경<sup>法華經</sup>》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주석을 달고 난 후 다시 단락별, 글자별로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천태종은 중국 불교 최고의 종파가 되었다. 이즈음 중국에 불교 종파의 수가 갈수록 늘어났는데, 법화종<sup>法華宗</sup> 이외에 중국 문화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은 유식종<sup>唯識宗</sup>이다. 《성유식론<sup>成唯識論</sup>》은 9)만법유식<sup>萬法唯識</sup>을 설명하는 경서로, 지식을 최고의 경지에 두고 있으며, 유식종은 당초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규모 큰 종파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성립된 종파로써 근대 절강 지역의 많은 학자들이 유식종을 따르고 있다. 당 대의 정치적 인물들 역시 천태종을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식종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모든 종파는 당 대에 점점 발전하기 시작했고, 인도 최고의 경전이 유입된 후 천태종은 중국의 철학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잡아갔다. 그리고 삼론종을 통해 논리학과 인식론이 크게 발전하였고, 유식론은 우리의 지식 영역을 더욱 광범위하게 해주었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도 더욱 정확해졌다. 그

9) 모든 현상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이다.

리고 일부 종파는 중국의 문화사 특히 엘리트 계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방 지역의 학자들은 계율의 영향으로 불도를 수행하고는 했는데, 예를 들어 인도에서 경전을 취하고 일본과 조선에 불교를 전파하고는 했다. 반면, 남방 지역의 학자들은 삼론종과 유식종 그리고 천태종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학문을 연구하였으며, 그들 모두가 승려가 되지는 않았으며, 일부는 거사居士가 되기도 하였다. 이 거사들의 학문 연구는 매우 깊이 있으며 중국의 많은 학술 문제가 거사들 집단 안에서 연구되었다. 또한 남방 지역의 고승대덕들은 종종 유가와 도가의 경전을 서로 비교 연구하였다. 웅십력熊十力 선생은 유식론唯識論 연구의 대가였으나 말년에 유가경전을 읽고는 불교를 부정하며 불교가 유교도리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유가야말로 진정으로 인간 세상 전체를 꿰어 볼 수 있으며 불교에서는 인간세상의 일부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석유新釋儒》라는 책을 써서 유가의 도리를 설명하였다. 이렇게 남방 지역의 고명한 선비들은 마지막에 이처럼 방향을 전환하여 도가 서적을 읽어나, 유가 서적을 읽었다. 도연명도 결국은 유가를 선택했다. 그는 혜원慧遠, 사령운과의 관계가 돈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가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도연명은 매우 가난했다. 그는 굶주림에 내몰려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고는 했는데 혜원이 집에 먹을 것이 많으니 오라고 했지만 도연명은 가지 않았다. 왜일까? 도연명은 마지막에 결국 유가사상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가사상이든 유가사상이든 불교 최고 경전이 들어온 후 세 종교의 경전은 서로 부딪히며 발전해갔다. 명 대 이후 청 대 300년 동안 중국에서 불교의 영향력이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였다. 진정한 고행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명 대 이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청 대에는 그 보다 더 적었다. 오히려 도리를 중시하는 일부 유가사상가들이 불가사상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유가사상으로 되돌아가고는 했다. 장병린 선생을 예로 들면 그는 유학을 다루었으며 혁명가였다. 그는 몇 차례의 감옥 생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혁명 중 그는 《집사론集舍論》이라는 한 편의 글을 썼는데 불교의 최고 경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서적이다. 하지만 말년에 다시 유가사상으로 돌아왔다. 즉, 인도 철학은 중국에 유입되고 난 후 유가사상, 도가사상과 함께 연구 되었으며, 연구를 거듭할수록 유가사상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은 유가의 위치를 제고하고자 한 말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갖게 되었



음을 말하고자 한 것뿐이다. 중앙 지도자들은 중국 특색의 10)“현대화”를 제창하는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것이 중국 특색의 현대화란 말인가? 즉, 중국 실정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중국인들은 살아가는데 있어 그들만의 일정한 방식이 있는데, 그건은 바로 만약 상대방이 나와 잘 맞는다면 나는 그 상대방을 따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우리는 많은 실상을 통해 어떠한 문물이 유입되었는지 간에 모두 중국화 한다는 것이 우리 문화의 가장 큰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 철학이 중국에 전파된 후에 일부 종파가 창립되었는데, 많은 종파들이 인도에는 없는 것으로 모두 중국으로 유입된 후 창립된 것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계초 선생의 《중국불교개론中國佛教概論》을 참고하기 바란다. 만약 민족마다 특유의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즈음에 민족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은 순박한 기질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세계 각 민족과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순박한 기질은 유가와 도가사상과 관련이 있다. 중국 국민은 외유내강한 기질을 갖고 있는데, 외유의 기질은 도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고, 내강의 기질은 유가에서 받은 영향이다. 유가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으며, 도가에서는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조화시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상대방과 싸우지는 않지만 경쟁은 벌인다. 유교의 사상은 유순함이다. 그래서 도가가 유가와 결합할 수 있지만, 불교는 유가와 결합할 수 없다. 당 대에 이르러 세 개의 종교가 결합하였는데, 그 결과 백성들은 유순함과 유약함에 너무 치우치게 되었다. 노신魯迅 선생도 이 점을 언급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중국 문화는 세 번째 큰 변화를 통해 최대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후 위진 시대에 서서히 일어나, 수당隋唐 시대에 천천히 성행하다가, 당 말에 최고 성행기를 맞았다. 불교가 크게 성행했던 바로 그 시기가 유교와 불교의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이다. 당시 통치자와 사대부들은 불교를 이용해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으나 백성들은 쉽게 믿지 않았다. 결국 불교는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다. 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당 말기에 한유韓愈라는

---

10) 사대현대화四大現代化 :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분야에 있어서의 현대화를 말한다.

스스로 유가도통이라 자처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덕종(德宗)이 부처사리를 맞이하는 것을 한사코 반대했다. 그런데 한 번은 높은 산에 올랐다가 겁이 나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한 승려가 그를 데리고 내려왔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학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심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유가 이념을 따르고 있더라도 때에 따라 불교의 것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요약해보면 우선 중국 문화는 총 세 번의 큰 변화를 거쳤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변화는 춘추 전국 시대에 발생했는데, 변화의 결과는 11)삼진(三晉)과 12)제노(齊魯)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주진제자(周秦諸子) 모두 삼진과 제노 사람이며, 공자는 말할 것도 없다. 법가(法家) 역시 삼진 지역에서 발생한 학파이다. 노자는 초(楚)나라 고현(苦縣) 출신으로 현재로 치면 남방 사람에 속하지만, 고현은 북방 지역에 근접해있기 때문에 도가의 기반 역시 제노와 삼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 이후의 중국 문화 예술 영역의 모든 것들은 초나라의 문화를 흡수한 것이다. 한나라는 중국을 통일했고, 한고조는 초나라 사람으로 초나라의 것을 매우 좋아했다. 한고조는 장안의 한 지역을 획정하여 사람들을 이주시켜 그 곳에 살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관(實關)”이라고 했다. 한고조가 이렇게 함으로써 초나라의 문화가 한나라의 문화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한나라의 정치제도는 여전히 진나라의 것을 이어 사용했다. 그러므로 한 왕조의 문화에도 여러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한나라의 정치제도는 진나라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문화 예술은 모두 도가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진시황은 한무제와 함께 첫 번째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는데 이는 정치적 첫 통일이자 진정한 첫 통일이었다. 주나라의 중국통일은 진정한 의미의 첫 통일이라고 볼 수 없다. 한무제가 백가들을 배척하고 유학을 표창한 것은 사상의 통일이다. 하지만 진시황이 분서갱유(焚書坑儒)를 할 때에도 국가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은 결코 불에 타 손실되지 않았으며, 한무제도 백가들을 배척하고 유교사상을 중시하였지만, 한나라 유향(劉向), 유희(劉歆)부자가 국가도서관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도가서적들을 버리지 않고 13)구류(九流)의 서적도

11) 삼진은 현재 산서, 섬서 지역을 가리킨다.

12) 제노는 현재 산둥 지역을 가리킨다.



모두 도서관 안에 두었다. 그 때는 불교가 아직 중국으로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만약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불교경전도 함께 도서관에 소장했을 것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진시황과 한무제는 중국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의 요점이다.

두 번째 변화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한 말에 발생했다. 한 말에는 금문학이 쇠퇴하고 고문학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고문학이란 무엇인가? 고문학은 한 왕조 이전에 유가의 영향을 받고 형성된 민간 학설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번째 변화를 거치면서 사회의 분위기는 안정되고, 사회의 인의도덕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인의도덕은 중국 봉건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인도 문화가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세 번째 변화가 시작됐다. 중국의 유가와 도가 두 종교는 불교와 융합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논쟁은 당현종 시기까지 계속되었는데 당 명황제는 어쩔 수 없이 세 종교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당 현종은 여전히 유가를 신봉했다. 겉으로는 불교의 《금강경金剛經》 도가의 《노자老子》에 주석을 달아 이 종교를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주된 목적은 유가의 《효경孝經》에 있었다. 따라서 중국 문화의 세 번째 변화는 유교와 도교가 서로 결합하여 불교사상에 맞서 논쟁을 벌이고 불교를 억압한 것이다. 이러한 억압 때문에 중국에서 불교는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중국 전체의 역사가 아닌 돈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이후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세 번째 변화가 성공 한 후 중국에 중국인의 문화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당 이후에도 거의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이야기 한 것들을 결합하여 돈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 돈황에는 유가, 도가, 불가의 가장 중요한 서적들이 보존되어 있다. 승려들이 거주하는 사찰 안에 불교경전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사찰 안에 불교경전 외에 대량의 유가경전, 도가경전이 있다면, 게다가 이 유가경전, 도가경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가장 재질이 좋은 종이에 가장 좋은 붓과 먹으로 가장 우수한 필경생에 의해 쓰인 것이라면 이는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

---

13) 제자백가를 구류라고 한다.

없다. 하지만 문화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납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돈황 문물은 경전이든 혹은 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연구하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전체 중국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전체 문화의 각도에서 바라보면 돈황은 우리를 대신하여 중국 문화의 보물을 보존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보물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그 양도 어마어마하다. 도가경전과 유가경전은 거의 모두 보존되어 있으며, 중국의 일부 지식과 중국 사회의 일부 현상도 보존되어 있다. 이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돈황 문화가 중국 문화사에서 지니는 가치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돈황 예술로 돌아오자. 돈황 예술품은 조각상, 벽화 등 조형 예술이 기본 바탕을 이룬다. 돈황의 조각상과 벽화는 모두가 인도가 아닌 중국 본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인도 예술의 요소도 함께 섞여 있다. 중국에는 일찍이 조각상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돈황의 벽화는 모두 선으로 묘사된 것으로 어느 하나 유럽의 것처럼 물감으로 염색된 것은 없었다. (참관을 갔던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예술사에 “글자와 그림의 근원은 동일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글을 쓰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방법이 하나의 근원에서 발생했다는 것임을 뜻하는 것인데, 중국의 글자가 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의 글자도 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럽지역 글자의 선에는 제한이 따른다. 예를 들어 영어인 경우 자모는 26개 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글을 쓰는데 제한이 있다. 하지만 중국 문자의 선은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楷” 라는 글자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자. 광초체狂草體를 보아라. 자유분방하게 갈겨 쓴 광초에도 선은 존재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고대의 물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진先秦 시대에 사용하던 갑골과 제기祭器에 새겨진 글자 역시 선으로 되어있다. 이 글자들은 간혹 굉장히 괴상하게 쓰여 있기는 하지만 선으로 예술작품을 완성한 것이다. 전국 말기 초나라의 동기銅器에 쓰인 많은 글씨에는 새의 머리나 벌레의 모양이 추가되었다. 이것이 바로 조충서鳥蟲書이다. 글씨를 새나 벌레 모양 안에 집어넣은 것이다. 선을 예술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왕백민王伯敏 선생이 우리에게 설명해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돈황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음악이다. 돈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음악 자료는 많

지 않은데 대개 그림과 벽화로 춤과 연주에 관한 그림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악기는 비파와 생황이다. 이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는 것인지는 우리도 알지 못한다. 최근 섬서성과 감숙성에서 당 대 음악을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미 좋은 성과도 내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지식을 기반으로 당 대의 음악이 어떠했을지 추정할 수 있다. 음악은 중국 문화사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 민족이 남북 간에 융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언어이며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음악이다. 문자도 포함되지만 문자는 언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문자는 제쳐두고 언어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언어는 중국 민족을 응집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남방 사람이 북방 지역으로 가서 북방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북방 사람도 남방 지역으로 가서 남방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많은 방언을 알아들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융합할 수는 있다. 음악에 대해 논하자면 더욱 그러하다. 남방의 악기를 북방에서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운남 변두리 지역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운남 서쌍판납西雙版納 지역 소수 민족의 음악은 매우 성행했었는데, 그 곳에서 사용하는 악기 중 북방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없었다. 음악 역시 통일된 것이다. 음악의 통일은 우리 민족과 매우 관계가 크다. 나는 전에 서안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섬서성 북쪽의 민요를 들은 적이 있다.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소리는 소주 사람이 부른 것 같았고, 웅장한 소리는 동북 지역 사람이 부른 듯 했다. 즉, 음악의 방식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당 대의 성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살펴보았다. 《신당서新唐書》의 《예악지禮樂志》에 당 대 국립 악단에 십부기十部伎라는 것이 있었다고 언급되었는데, 모두 열 가지로 십부十部라고도 했다. 연악燕樂과 청악淸樂은 중국의 전통 음악으로 중국의 전통 음악은 이 두 가지이다. 그 외에 여덟 가지는 모두 서북 지역의 것으로 인도에서 건너온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서량악西涼樂, 천축악天竺樂, 구자악龜茲樂, 안국악安國樂, 소륵악疏勒樂, 강국악康國樂, 고창악高昌樂 그리고 고려악高麗樂이다. 그러므로 당 대 국립 악단인 십부에서 여덟 가지는 외국의 것이고 중국의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음악을 예를 들어 보면 인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민간 음악에 상,

척尺, 공工, 범凡, 육六, 오五, 을乙, 상上, 척尺, 공工, 범凡, 합습, 사四, 일一 등 음계가 있는데 그 중에 상上, 척尺, 공工, 범凡, 합습, 사四, 일一 은 Do, Re, Mi, Fa, Sol, La, Ti에 해당한다. 하지만 육六과 오五 이 두 가지 음은 서양악기에는 없는 것으로 중국 민간악기에 이 두 가지 소리가 존재한다. 인도 음악에는 9개의 음계가 있고, 현재 우리의 민간악기에는 상上, 척尺, 공工, 범凡, 육六, 오五, 을乙이 있는데 육六, 오五, 을乙은 중국 특유의 음이고, 상上, 척尺, 공工, 범凡, 합습, 사四, 일一은 일반적인 것으로 인도의 음악이며, 중국 음악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중국 고유의 음악인 아악雅樂은 12조로 몇 개의 반음을 제외하면 7조밖에 남지 않는다. 아악은 12조, 연악은 9조로 구성된다. 인도의 음계, 인도음계의 척보尺譜, 중국의 공척보工尺譜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이 표를 통해 우리는 많은 부분이 인도에서부터 전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도의 음악과 우리 민간의 음악이 이렇게 잘 결합 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의 9개의 음계가 중국으로 유입되어 우리의 음악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근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어떻게 그 답을 찾았을까? 그것은 바로 호북성湖北省 증후을曾侯乙의 묘 안에서 편종編鐘이 발견 된 후 중국 음악에 12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이다. 세계 어떤 음악 이론에서도 중국의 증후을의 묘에서 발견된 편종의 조 만큼 복잡한 것은 없다. 이것은 중국이 최초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와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가 당 대에 이르러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인도와 중국의 것을 한 번 비교해보면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처음 우리 중국 예술의 본체는 인도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주장을 뒤엎고 음악은 중국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다. 우리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아마 중국에서 건너 갔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돈황에서 많은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사용했던 악기만을 보고 몇 가지의 악기가 십부악에도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십부악에서 매우 신기한 것이 바로 북이다. 인도의 북은 중국의 것보다 그 종류가 아홉 개가 더 많다.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북만 포함된 것으로 민간에서 사용되던 악기는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거주했었던 운남만 보더라도 운남의 서쌍판납지역의 북은 여섯 가지이고 소통 지역의 북은 네 가지이다. 이 열 가지 북은

경전에는 없는 것들로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예를 들어 중원 지역에서 손으로 치는 북은 찾아 볼 수 없다. 모두 채로 쳐서 소리를 내거나 14) 끈을 매달아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형태이다. 그러나 소통 지역에는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북이 있는데 매우 간단하다. 두꺼운 대나무를 가지고 그 둘레를 소가죽 혹은 돼지방광을 둘러서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그런데 악기라고는 하지만 공식적인 음악에 편입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인도의 악기가 중국에 유입된 후 모두 국가에 의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황에서 찾아낸 악기가 당 대 십부기에 모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악기들 모두 중국에 없고 인도에서 유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음악이론학적으로 중국에 일찍이 존재했던 것들이다. 이것은 민간 음악이 국가 음악에 흡수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인도의 춤이 중국으로 건너왔다고 말하고는 한다. 벽화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벽화에 아잔타 지역의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 사람이 그린 석가모니불열반을 보면 석가모니를 둘러싼 사람은 키가 모두 큰데 석가모니의 전신을 앞뒤로 수십명이 둘러싸고 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국에 유입된 후 석가모니의 모습은 중국인의 모습처럼 변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사천의 대족大足인데 이것은 돈황의 것 외의 대족석각大足石刻 중에 최상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대족석각의 보살은 사천 사람들이 신는 짚신을 신고 있는데, 중국으로 들어온 뒤 자연스럽게 중국의 문화가 섞였고, 많은 대족 불상의 얼굴이 바로 사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이것은 왜일까? 모든 문화가 새로운 지역으로 유입된 후 반드시 그 오래된 문화 그리고 본토의 문화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이런 원리에 불과하다. 또 돈황 벽화에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인도 비파 연주자는 모두 비파를 가로로 잡고 연주하고 있으며, 중국 비파 연주자는 세워서 연주하고 있었다. 중국 연주자는 얼굴의 반을 가리고 비파를 튕긴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뒤에서 연주하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이런 경우는 없다. 연주 방법도 중국화 된 것이다. 하지만 비파는 동일했다. 중국과 인도의 교류는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14) 打郎鼓타랑고 : 북에 구슬이 달려 흔들면 소리가 나는 북이다.

는 많은 힘을 들여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수준으로 는 당 대 십부기에 인도의 것이 있었으며, 당 대 음악에 인도와 관련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이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국내에서 또 다시 발견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설명해 줄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음악과 관련하여 이야기 한 것일 뿐이고 전체 예술로 본다면 인도와 중국 그림과의 관계는 더욱 깊을 것이다. 벽화는 이미 말했듯이 선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중국의 글자와 그리고 글자를 쓰는 방법과 원리가 같다. 돈황 벽화에 그려진 모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중에 중국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 없다. 도축, 수렵, 경작, 파종, 기마 방식 모두 중국인의 모습이다. 나의 흥미를 가장 끌었던 것은 바로 주방이다. 주방의 도구 중 인도의 것과 동일한 것은 없었으며, 모두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어 그 지역에서 필요로하면 사람들은 채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인도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양손으로 먹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젓가락은 쓸모가 없지만 중국인은 젓가락을 이용해 밥을 먹기 때문에 중국에는 이 젓가락 외에 숟가락도 다양하다. 인도 사람들은 하나의 접시에 밥과 야채를 한 데 모아 손으로 먹는다. 중국인은 이런 습관이 없다. 그래서 주방 용구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금보니 많은 것들이 민간에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의 고전 문학과 고전 기록에도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 문화가 돈황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의복과 관련된 것이다. 의복은 한 민족의 특징을 나타낸다. 돈황에서 볼 수 있는 의복, 특히 부녀자들의 얼굴장식(앞서 언급한 적이 있다.)과 여인들이 얼굴에 칠하는 지분(脂粉)의 종류는 매우 많다. 우리가 아는 것은 백분과 붉은 연지 뿐이지만 고대에는 때때로 검정색 분을 바르기도 했다. 우리는 돈황 벽화에서 얼굴에 검정색, 황색, 백색, 청색 분을 바른 모습과 얼굴에 많은 꽃 장식을 한 모습을 보았다. 특히 이마에 큰 붉은 구슬을 찍고 그 아래 목단화, 국화 등을 붙이거나 새 모양 장식을 붙인 모습이 있었는데, 유명한 새는 죄다 붙였다. 우리는 당 대와 송 대 사람들이 쓴 사詞만 읽고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돈황의 자료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한나라 때 한나라 사람이 쓴 고시 19수에서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없지만, 돈황 벽화에서는 그 증거



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 그림과 돈황은 서로 관련성을 지닌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연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왜 돈황 문화가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국 역사의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하나의 왕조가 가장 성행하고 난 후에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실된 서적을 찾고 수집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혜제漢惠帝는 즉위 후 산실된 모든 서적을 수집하도록 하고 모든 서적을 수도로 보내도록 했다. 어떤 황제는 가장 높은 값에 구매하기도 했다. 여기서 중국이 줄곧 문헌을 중시한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헌을 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 한 후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은 유가경전을 모두 태워 없앤 사건이다. 이것은 중국 문헌의 대 재앙중 하나이다. 왕망王莽이 왕권을 찬탈하면서 수도에서 대란이 발생했고 유항, 유흠 부자가 정리한 국가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서적은 훼손되었다. 이것이 중국문헌의 두 번째 재앙이다. 이 외에도 많다. 동탁董卓 또한 함양咸陽의 서적을 모두 태워버렸다. 이러한 사건은 위에 서술한 사건 외에도 다수이다. 모든 황제가 즉위 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서적을 수집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많은 힘을 들였다. 그리고 훗날 전란 혹은 화재로 인해 모두 산실된 것이다. 당 대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태종이 황위를 계승하고 직접 책을 수집하러 나섰는데, 당현종에 이르러서는 국가 도서관에 39만 여 권의 서적이 소장될 정도였다. 적지 않은 서적이었다. 그러나 안사의 난때 모두 훼손되었다. 즉, 중국 역대 황제들은 많은 힘을 기울여 서적을 수집했고, 후에 대부분 큰 전란이나 화재로 서적 모두 훼손되었다. 몇 천년 동안 많은 문헌들이 이렇게 훼손되어 사라져갔다. 그러나 돈황에 있는 문서는 완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이다. 이렇게 대규모로 잘 보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돈황이 수도가 아니며, 재난이 반드시 미치는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돈황은 외진 곳에 숨겨져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돈황의 문물이 완전하게 보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돈황문물이 잘 보존 될 수 있었던 지역적 조건이다. 또 다른 조건은 돈황이라는 지역이 매우 특별하다는 것이다. 막고굴의 모래는 그 질이 매우 좋아 응고가 잘 되었다. 마치 찰흙과 같아 물방울이 새지 않고 바람과 모래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돈황 부근 삼위산三危山의 모래는 매우 잘 흐트러지고 바람이 불면 모래 언덕이 쌓이고, 다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바람에 흐트러진다. 그러나 막고굴에는 이러한 현상이 없다. 그래서 막고굴은 아마도 우리의 문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늘이 내려주신 것 같다.(이 말은 미신이다.) 이런 동굴은 건조해서 서적이 물로인해 훼손될리 없고 습기도 없다. 그래서 천여 년, 천이백 년 가장 오래된 진혜제晋惠帝의 유물은 거의 이천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돈황의 지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뛰어난 조건을 선사했다. 돈황은 매우 이상한 지역이다. 지역이 형성될 때부터 기이했다. 돈황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넓은 사막이며 유일한 오아시스인 돈황이 그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돈황은 옥문관의 제 1 관문이다. 드넓은 사막, 거대한 산 아래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면 매우 기쁘다. 그래서 인도의 승려들은 모두 돈황에서 일이 년은 꼭 머무르고는 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며 요양한 후 다시 갈 길을 가고는 했다. 하늘이 우리에게 좋은 오아시스를 주어 우리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게 했고, 보존된 문물은 모두 완전했으며 체계적이었다. 현재 돈황의 모든 문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돈황학”이라 칭한다. “學”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을 지닌 것일까? “學”은 바로 어떤 것이 체계를 잡게되는 것이며, 최초발생에서 발전을 거쳐 쇠락까지의 순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學”이라고 하며, 돈황이 바로 이런것이기에 “學”인 것이다. 돈황의 모든 자료 권자든, 벽화든, 조각상이든 좋다. 모든 자료가 우리 문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돈황의 건축은 중국 고대의 목조 건축의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송나라 사람이 쓴 중국 고대 건축에 대한 서적인 《영조법식營造法式》에 언급된 고대 목조 건축 구조와 돈황 건축과 비교해보면 모든 양식을 돈황에서 발견할 수 있다. 15)교翹를 예로 들자면 《초사楚辭》에 나와있는 교는 판교각板翹角이다. 판교각은 중국 건축에서도 목조 건축에서만 볼 수 있으며 석재로는 교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목조 건축에 매우 큰 취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넓게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건축학에 넓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6)두공斗拱이다. 많은 두공을 층층이 쌓다보면 건축물을 크게 확장 할 수 있게 된다. 이것 역시 돈황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설명하던 간에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이던

15) 끝이 치켜 올라가 있는 양식

16) 목조건축에서 처마를 받들기 위해 기둥 위에 복잡하게 엮은 까치발의 목조구조

간에 돈황으로 가서 몇 년 자세히 관찰해야한다. 목조 건축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는 돈황의 목조 건축을 살펴보고, 돈황의 벽화를 살펴보아라. 만약 의관 제도를 다루고 있다면 역시 돈황으로 가서 살펴보아라 모든 것이 다 있을 것이다. 즉, 현재 국가에서 돈황학을 중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돈황학은 이후에 매우 크게 발전할 것이다.

### 제 3강 돈황 경전권자의 간단한 소개 (上)

권자를 상세히 분석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라고 하였다. 그리고 “간단한 소개”라고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파리와 런던 그리고 북경 세 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권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미국, 러시아에 소장된 권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이 자료들도 언급해야 마땅하지만 몸이 노쇠하고 시력이 점차 떨어져 다룰 수 없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그리고 북경에 소장되어 있는 권자들이 전체 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라 하더라도 거의 모두 소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권자는 아래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불교경전에 대해서 살펴보자.

#### 1> 불교경전

파리, 런던, 북경 세 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권자는 경, 논, 료에 상관없이 모두 있으며, 또한 권자들 모두 거의 완전하다. 그렇다면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각 종파의 권자가 모두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고 작은 종파의 권자뿐만 아니라 그 종파들과 관련된 언어, 문자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불경은 앞면에는 한문으로 쓰여 있고 뒷면에는 주로 불경의 원문 즉, 산스크리트어 아니면 소그드어, 팔리어 등이 쓰여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이 경전들이 어디에서 번역되어 온 것인지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돈황의 불경들은 최초의 번역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병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연구가 더 이루어진 후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전해져오는 불교경전과 비교해보니 내가 직접 본 세 지역의 불교 경전권자 중에는 산실된 것이 많았다. 일본인의 《대정장大正藏》에 이 산실된 것들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돈황의 불교경전 중 국내에서 산실된 것은 이미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돈황 권자는 사본이 주를 이루는데 사본에는 대부분 필사한 사람의 이름과 초사한 시대의 배경 자료들이 남겨져 있다. 사본 외에 각본이 있는데 각본은 당 말기 덕종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사본과 각본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는 아마 사본을 수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각본에는 불경을 새기는 것 이외에 불상을 새겨 넣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 문화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중국에서 인쇄가 어느 지방에서 어느 시대에 시작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본이든 각본이든 전체적으로 볼 때 돈황에 소장되어 있는 경전권자 대부분은 위진 시대에 시작하여 오대 말까지의 것들로 연대로 보면 58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것이다.

경전에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전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민간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경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소위 중요하다는 것은 각종 종파와 관련 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절강성의 천태종을 연구하려고 한다면 《마가지관摩訶止觀》 《법화현의法華玄義》 《법화문구法華文句》 이 세 개의 경전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천태종에서 특히 중요한 경전인 《대지도론大智度論》도 연구해야 한다. 또 유식종에서 중요한 경전은 《성유식론成唯識論》 외에 《성유식론대소成唯識論大疏》가 있다. 이 경전은 당 대에 이미 쓰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가종瑜伽宗의 경전으로는 《유가사지경瑜伽師地經》이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 종파마다 경전이 모두 있다. 만약 이 모든 경전의 중요도를 비교한다면 다음 10여 개의 경전 순으로 나열할 수 있다. 《유마힐론維摩詰論》 《승만경의勝鬘經義》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금강반약경金剛般若經》 《대지도론大智度論》 《금광명경金光明經》 《대비구니갈마경大比丘尼羯磨經》 《십지론의소十地論義疏》 《대집경大集經》 그리고 《섭론소攝論疏》 등으로 이 경전들은 모두 북위北魏 이전의 것들이다. 북위 이후의 것으로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관세음경觀世音經》 《불설보현보살증명경佛說普賢菩薩證明經》 그리고 《대방편불

보은경(大方佛報恩經) 등이 있으며 이 경전들은 모두 당 대에 번역되었다. 오대에 번역된 것으로는 《불설광명경(佛說光明經)》 《불설무량대자교경(佛說無量大慈教經)》 그리고 《불설연수명경(佛說延壽命經)》 등이 있다. 따라서 돈황의 불교경전이 매우 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 불경의 사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보고 이 경전이 당 대와 오대 시기에 민간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유마힐경(維摩詰經)》은 발견된 당 대 권자 중에서도 가장 많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 경전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다. 사람들은 부처를 통해 화를 면하고자 하였고 심지어는 부모,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대신하여 부처에게 기원했다. 이 몇 권의 경전들은 모두 초사한 것들이다. 당 대 불경을 연구하는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경(寫經)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는 프랑스, 런던, 북경 세 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사경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대체적으로 70여 종이 있는데 권자의 수량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현재 발견된 돈황 권자는 완전하지도 않으며 함부로 보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강경(金剛經)》은 두 권이 있는데 단지 이 두 권뿐일까? 단언하기 힘들다. 아무튼 그 종류는 대략 70여 종이며, 권자의 수는 감히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이다.

둘째, 나는 불경과 우리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다. 불경에 나와 있는 몇몇 이야기는 우리 문화와 매우 큰 관련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이족문자(異族文字)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권자마다 이족문자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전권자의 앞면은 번역문이며 뒷면은 번역문의 원문이다. 이러한 문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민간에서 가장 유행하던 《금강경(金剛經)》은 10여 종의 문자 사본이 있는데 원래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돈황에서 발견된 《금강경(金剛經)》 뒷면에 괴이하게 생긴 글자가 있었다. 이러한 문자는 중국과 타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불교, 도교, 유교경전과 외국 문화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권자 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경전권자의 뒷면에 적힌 이족문자는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런 문자들은 많은 경우 외국에서조차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 세계에 소그드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돈황 권자에는 소그드어 뿐 아니라 팔리어등 여러 민족의 문자가 등장하는데 돈황 권자를 통해 이 민족은 그들의 고대 문자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돈황학이 어떻게 전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일까? 나는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그들 선조의 문화가 좋게 기록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런 사료는 찾기 힘들다. 그런데 그런 찾기 힘든 역사적 자료가 중국에 존재하니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매우 귀한 자료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현재 외국인들은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이 권자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 북경의 권자들의 가치는 매우 높다. 감히 최고의 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값어치를 산정할 수 없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돈황에 묻혀 있으니 어찌 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돈황 권자에 기재되어 있는 외국 민족의 문자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보물이다.

셋째, 돈황의 많은 불경이 송 대 이후 이미 사라졌지만 돈황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물론 이 불경들 모두 17)대경大經이 아닌 소경들이지만 비교적 희소한 경전들이다. 하지만 인류 문화는 이런 것이다. 바로 보기 드문 것일수록 더욱 완벽하게 수집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전에 산실된 경전의 목록을 만든 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일본의 《대정장大正藏》에 이미 산실된 경전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이것을 완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돈황대장경敦煌大藏經》을 편찬할 것을 건의하고 싶다. 내가 알기로 북경에서는 이미 이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나는 당연히 진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했다. 나는 《돈황대장경敦煌大藏經》을 엮는 작업을 잘 완성해야만 중국의 돈황학을 세계인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울 것이다. 우리가 선조의 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반드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 이 작업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다. 강습반의 16명이 모두 투입되어도 평생 완성할 수 없는 일이다. 아마 160명이 힘써 10년 동안 작업을 한다면 겨우 완

---

17) 대경은 유행했던 경전을 의미한다.

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위대한 작업이다. 몇 년 전 한 친구가 인도로 건너 갔는데 그는 불경을 연구했었다. 그는 권자 하나를 가져가서 비교했다. 그는 그 권자가 중국에서 사라진 불경이므로 인도에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는 인도의 모든 도서관과 박물관을 모두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인도에서도 사라진 것이었다. 이 권자가 세계 유일한 것이었다.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세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돈황 불경의 번역에 대해서는 다소 오차가 발생하는데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동일한 불경을 번역하더라도 문자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마하반야摩訶般若”를 어떤 사람은 “반야般若”를 없애고 “마하摩訶”라고만 썼다. 또, “유마維摩”를 “유마힐維摩詰”이라고 쓰기도 한다. 두 권자에 다른 문자가 쓰인 것을 이문異文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문은 우리가 어떤 글자가 맞고 틀린지 비교대조 할 때 도움이 된다. “마하반야摩訶般若”가 바르게 쓰인 것으로 기타 번역은 모두 좋지 않다. 그리고 이는 돈황 권자를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권자는 육조 시기에 번역된 것이고, 또 다른 권자는 당 대에 번역된 것이며, 각각 광둥廣東 사람이 번역한 것, 산서 사람이 번역한 것이라면 역자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역서에 쓰인 어휘도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명사의 번역을 통해 어느 지역 사람이 번역한 것인지도 알 수 있다. 당 대에는 절강성, 광둥성, 산서성 등 지역마다 글자를 읽는 방법이 달랐다. 중국 언어사를 연구하는데 이러한 사료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달마Dharma”는 광둥사람이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에서 “達摩”의 “摩”는 “MO(모우)”라고 읽는데 광둥사람들은 뒤에 “M”을 더해서 읽는다. 그래서 실제로 광둥사람은 “달마”를 “達摩勃”로 읽는다. 어떤 사람은 이 주장이 틀렸다고 하지만 사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의 이문을 통해 역자의 시대와 본적을 추측할 수 있으며 언어학과 관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매우 크다. 번역된 것에는 지명도 있는데 어떤 지명은 특정 시대에서만 사용이 되고 그 시대가 지나서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향주는 임안臨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송 대에 지어진 것으로 그 이전에는 향주를 임안이라고 하지 않았고, 18)송 대 이후에도 불리지 않았다. 만약 어떤 불경 안에서 임안이라는 두 글자가 발견되었다면 그것

은 송 대의 것이다. 이처럼 이문을 통해서 지리를 증명하고 역사를 증명 할 수도 있다. 번역된 것들은 우리 문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번역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 경전의 번역본에는 종종 여러 판본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번역자가 누구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구마라습鳩摩羅什은 《대지도론大智度論》을 번역했는데 당 대에 현장玄奘이 다시 번역했다. 이 두 개의 경전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구마라습이 번역한 번역서의 이름과 분위기, 필치가 현장의 것과 다르고 어법, 사용한 어휘도 역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개의 경전권자가 다르게 번역된 경우가 돈황 권자에서 매우 많이 보인다. 어떤 것은 8, 9가지의 다른 번역본이 있기도 하다. 이 문제도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8, 9 가지의 번역본은 하나의 원본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8, 9 가지의 원본에서 각각 번역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연구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국내에 없다. 나는 절로 나의 스승이신 진인각 선생이 생각났다. 그는 12개의 언어에 정통했으며 어떤 언어로 쓰인 책이든 그에게 보여주면 어느 지역의 언어인지 알려주셨다. 이 문제는 향후 우리가 더욱 노력해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나중에 상이하게 번역된 경전을 가지고서 원본을 추적하여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문화와 관계가 깊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이한 번역본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단지 번역이 다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번역된 경전의 중요성을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는 그 자체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 지리, 언어, 문학 어떤 학문을 연구하든 모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학학자라면 돈황에 “변變”이라고 불리는 문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왜 “변”이라고 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언어학자들의 책임이며, 문자 학자, 역사 학자의 책임이다. 즉, 상이한 번역본들은 우리 중국 문화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이것이 네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돈황 권자에서 불교 역사를 다룬 많은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 이미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 바로 불교사를 연구하는 사

---

18) 송 대 이후 문인들은 재미로 향주를 임안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람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을 조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경에 소장되어 있는 양각 21호 《불설보현보살증명경佛說普賢菩薩證明經》를 살펴보면 매 권의 시작 부분에 십 여 줄의 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경전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된 역사이며,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중국에 들어온 후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와 다시 연결된다. 예를 들어 불찬과 불도와 관련된 한 권자의 목록 중 그 첫 편에서는 당시 인도 본토의 불교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현장이 인도에서 경전을 구했을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19)법현이 쓴 《불국기佛國記》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보강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불교의 역사와 같으며 인도의 사료로써 중국 뿐 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인도의 많은 종파는 이미 사라졌고 중국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불경도 이미 많이 사라졌으며 중국에만 보존되어 있다. 돈황의 불교경전에는 불교 역사 뿐 아니라 인도의 역사도 담고있어 역사의 범위가 넓어졌다. 인도역사 이야기는 접어두고 불교역사만 이야기 하겠다. 이것도 우리가 연구 할 때 주의해야할 것이다. 현대 불교사 연구에 있어 권위자 몇 분이 계신데 그 중 한 분이 탕용동湯用彤 선생이다. 그는 성실히 불교사 연구에 임했으며 중국 불교경전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돈황의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어도 능하고, 산스크리트어도 배운 적이 있으며, 프랑스어, 독일어에도 능하여 네 개의 언어를 이해한다. 그래서 그가 쓴 《중국불교사中國佛教史》는 그 내용의 기원이 확실하다. 돈황학을 연구할 때는 중국에서 불교의 기원과 발전의 체계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 한다. 인도 불교가 중국에서 전파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돈황 권자에서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진원암陳援庵 선생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중국불교개론과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많은 돈황 권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래서 이 자료들 역시 우리의 귀한 재산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하여 정리하고 연구해야 한다.

여섯째, 중국에서 불교와 기타 종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후 도교, 유교와 엮이면서 일종의 관계가 발생했다. 불교경

---

19) 멕시코에 갔던 법현이다.

전 안에 불가와 도가가 쟁론을 벌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교논형三教論衡”이다. 어떤 종교가 불교와 일종의 관계가 발생하면 불교에서는 그 종교를 비판하였으며, 이 뿐만 아니라 그 종교도 불교를 비판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폴리오가 가져간 p.2862권 4절에 한 단락의 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명제漢明帝 대신의 “칭양품稱揚品”이다. 한명제가 아래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대신들은 익주益州에서 중산鐘山과 장연張衍이 논쟁을 벌인 일을 아직 잘 모르시오?” 라고 한 내용이다. 이것은 바로 불교와 도교의 논쟁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매우 많은데 돈황 불교경전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다 보면 자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삼교논형에 관해 하남河南 지역의 나이가 지긋한 분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가 볼 수 있었던 자료들은 돈황 권자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외에 많은 다른 경전에서도 많은 좋은 자료를 수집했는데, 주로 《홍명집弘明集》과 《광홍명집廣弘明集》에서 수집한 것이다. 반대로 도교와 불교간에도 논쟁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경전이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이다. 이 책에는 노자가 일찍이 그의 도를 오랑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전한 적이 있으며, 서장과 인도에서도 설법 한 적이 있다고 적혀있다. 그 결과 오랑캐들이 감화되어 모두 노자의 도를 따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석가모니불이 노자의 제자라는 말까지 나와 있다. 이것이 바로 도가와 불교의 투쟁에 관한 가장 좋은 자료이다.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도가경전은 매우 재미있다. 불교경전은 경, 논, 룰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반해, 최초의 도가경전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만 있었고 다른 것은 없었다. 그러나 도가가 종교를 형성하게 된 후 경전을 경, 논, 룰로 나누어 만들고 싶어서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을 경으로 삼고, 장자莊子の 《남화경南華經》을 논으로 삼고, 《십계경十戒經》을 룰로 삼았다. 그러므로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진 후 중국의 종교도 어느 정도 발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훗날 도교의 경, 논, 룰은 완전히 불교의 것을 베낀 것이다. 또 불교에 매우 중요한 집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처의 설법을 듣는 것으로 돈황 벽화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 내용은 문수文殊보살이 설법을 들으러 떠났으며, 용수龍樹보살도 설법을 들으러 갔다는 것이다. 도교에도 조원회朝元會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불교와 같이 설법을 듣는 것은 아니었다. 노자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를 이을 제자가 없었다. 조원회가 바로

대제자大弟子가 설법하는 것이다. 도가에 정말로 조원회가 있었을까? 사실 없었다. 훗날 도교는 도교의 한 종파인 천사도天師道가 그 주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장도릉張道陵의 도교이다. 장도릉의 도교는 일찍이 형성되었지만 당 대에는 성행하지 않았다. 당 대에 도가는 이미 경, 논, 룰 이 세 가지 경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불교경전이 중국에 들어 온 후 영향을 가장 많이 가장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도교이다. 도가는 불가의 음의音義, 품식品式에서 음악音樂까지 배웠다. 도가경전의 음악은 현재 이미 중국 종교음악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꼽힌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도가경전은 뒤로하고 도가의 음악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아름답기 그지없다. 어떤 이는 도가의 음악이 혹시 당 대의 불교 음악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누군가 연구 조사 중에 있으며, 일본인도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지만, 그들의 결론을 알 수 없어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도 도가 음악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동경洞經》”을 연주하는 것이다. 《동경洞經》은 《동현경洞玄經》의 약칭이다. 이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들어볼 수 있는데 운남성 서쪽, 사천성 서쪽 외 두 세 지역에서 완전한 도교의 《동경洞經》 음악이 보존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음악 또한 매우 아름답다. 소문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불교와 함께 중국에 전해진 몇 개의 종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니교摩尼教이다. 마니교가 중국에 들어오고 난 후 장안까지 전해졌고, 훗날 장안에서 개봉開封까지 종교가 전해졌다. 40, 50년 전 개봉에 여전히 마니교 신자가 있었고, 50여 년 전에는 성도에도 있었다. 그들은 마니교를 믿고, 마니교경전을 읽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라진옥羅振玉 선생, 진원陳垣 선생, 왕국유 선생 모두 글을 썼는데, 마니교경전의 내용과 마니교가 중국으로 유입되어 온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논했다. 또 화현교火祿教라 불리는 것은 인도의 소수 종교인데 역시 인도 주요 종교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왔다. 이 종교는 현재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돈황에서 이 종교와 관련된 몇몇 권자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나는 알아 볼 수 없었다. 이 외에 또 하나의 큰 종교가 있는데 경교景教라고 불렸다. 경교경전 역시 돈황에 남겨져있다. 또, 경교에는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 높이가 거의 3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바로 그 유명한《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이다.



현재 이 비석은 서안에 있으며 당 대에 새긴 것으로 종교 연구자들은 모두 이 비석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진 경교大秦景教가 천주교와 기독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파리 한 박물관에도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가 세워져 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나는 이 소중한 보물을 프랑스에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폴리오에게 물으니 파리의 것은 중국의 사진을 근거로 파리에 중국 장인을 초청하여 새긴 것으로 복제품이라고 말해주었다. 알고 보니 이런 복제품들은 매우 많았다. 아마 세계에 천주교가 있는 국가라면 거의 모두 복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교경전이 인도 종교를 따라 중국으로 들어 온 것 역시 중국 문화에 있어 대단한 일임과 동시에 인류 문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돈황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거의 모든 중국 문화는 돈황과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중국과 불교음악은 서로 관계가 매우 깊으며, 이 뿐 아니라 중국은 불교 예술과도 관련성이 있다. 불교 예술이 중국에 들어온 뒤 빠르게 중국화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의 것을 그 기초로 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의 열반상涅槃像은 석가모니가 숨을 거둘 때 잠든 모습으로 얼굴의 모습, 잠든 모습 등 중국에 있는 모든 와불상의 모습이 동일하다. 그리고 그의 후광은 반원형의 형태이고 후광 뒤에는 모두 소수 민족인데 인도의 각 종파, 각 민족의 사람들이 뒤에 서서 불법을 따르는 것으로 중국도 이렇게 그린다. 또한 부처이든, 보살이든, 시사侍士이든, 공양인이든 상관없이 그 복장이 모두 인도의 복장이었다. 이로써 인도의 의복이 중국에 특히 여성 의복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당 대 사람들은 다소 살이 찐 편이었는데, 따라서 의복도 자연스레 넉넉해졌다. 의복 사이즈가 크고 구슬로 몸을 뒤덮은 모습이 바로 인도의 것을 베낀 것이다. 그래서 당 대의 많은 문화가 불교와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는 향달 선생의 《당대장안과 서역문명唐代長安與西域文明》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서안에서 당나라의 음악과 춤을 재현하고, 감숙에서 돈황의 춤을 재현하는 것은 모두 돈황 벽화를 근거로 한 것이다. 돈황 예술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도리깨를 두드리는 것도 역시나 인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돈황 벽화에 있다. 그러므로 돈황의 모든 것이 우리 문화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 2> 도가경전

도가경전의 상황은 불교경전과 조금 다르다. 돈황은 불교를 기초로 하지만 육조시대 이후 특히 수나라 이후에는 도교가 일어나면서 불교가 전해진 지역이라면 대체적으로 도교도 있었다. 불교와 도교 두 종교는 중국 역사에서 시종일관 대립했다. 송 대 이전에는 불교의 세력이 커서 불교와 도교가 서로 논쟁을 하더라도 불교를 이길 수 없었다. 그러나 송 대 이후 도교의 세력이 다시 커졌지만 도가의 교리는 깊지 못했으며 역사가, 철학자들은 도교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교는 민간의 낮은 계층에서만 유행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돈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가는 항상 노자를 교주로 내세웠는데 사실 도교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은 별개의 것이다. 도교에서는 《도덕경道德經》을 숭배하며 주요 경전으로 삼고 있지만, 도교는 《도덕경道德經》에 어떤 영향을 발휘하거나 발전을 꾀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교 소수 종파의 경전의 내용을 흡수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가지고 불교를 억압했다. 하지만 도교가 불교를 대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도덕경道德經》과 기타 도교경전은 나누어서 설명되어야 한다. 《도덕경道德經》은 그 분량은 매우 약소하지만 내용은 복잡하다. 학자들은 “노老, 장莊”이라 부르기를 좋아했다. 돈황에 남겨진 책 중에 《도덕경道德經》 권자는 상당히 많지만 《장자莊子》 권자는 그 수가 적다. 《남화경南華經》은 한 권만 발견되었지만, 그 또한 완전하지 못했다. 학자들이 “노, 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리가 있다. 노자의 《도덕경道德經》과 《장자莊子》는 내용과 기본 관점이 일치하며, 이론방법의 발전 또한 서로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도덕경道德經》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야기 할 텐데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돈황의 《도덕경道德經》은 주로 하상공河上公의 주석본이다. 후한 이후 《도덕경道德經》은 두 개의 주본이 전해졌는데 하나는 왕필王弼의 주본으로 《도덕경道德經》의 이론을 다룬 것이며 학자들이 보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상공의 주본으로 도사道士들이 보던 것이다. 하상공의 주본에서는 도교의 많은 것들, 예를 들어 《동현경洞玄經》과 같은 것들을 자주 《도덕경道德經》의 뒤에 두고는 했다. 그래서 권자를 펼쳐보면 도사道士들이 사용하던 《도덕경道德經》임을 알 수

있고 학자들은 그다지 많이 보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하상공 주본의 가장 큰 요점이다. 그런데 그것이 돈황을 모두 장악했다. 왕필의 주본은 존재할까? 있다. 한 두 개가 있으나 많이 훼손되었다.

둘째, 《도덕경道德經》 권자의 종이는 매우 정성을 많이 들인 것으로 돈황 권자들 중에서도 1등급 종이다. 당 대 책을 쓸 때 사용되던 종이는 크게 두 종류이다.(물론 두 종류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는 가공한 것으로 항주에서 과거에 숙선<sup>熟宣</sup>이라고 불리던 종지와 동일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다르다. 그 크기는 사척선지<sup>四尺宣紙</sup>를 절반으로 나눈 후 다시 4절지로 나눈 다음 다시 모서리를 조금 자른 정도이다. 종이를 만들 때 등을 틀 아래 놓고 틀 위에 종이를 깔고 종이 위에 양초를 칠한다. 그렇게 종이를 한 번 구우면 황색으로 변하고 조금 투명해진다. 그래서 경황지<sup>硬黃紙</sup>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종이는 당 대 글을 쓰는 종이로는 비교적 고급 재질의 종지로 불교경전은 경황지를 사용하여 쓰지 않았다. 또 다른 하나는 저백지<sup>楮白紙</sup>라 불리는 것으로 종이의 재질이 푸석푸석하고 성기다. 반면 경황지는 매우 견고하다. 나는 지금까지 수집된 권자를 소리만 듣고서도 구분 할 수 있다. 《도덕경道德經》 권자는 모두 경황지를 사용해 썼다. 하지만 사진으로는 알아 볼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원본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도덕경道德經》 권자는 종이의 재질 뿐 아니라 글씨체와 교감<sup>校勘</sup>에도 신경을 썼다. 권자의 마지막에는 종종 20)곽선공<sup>郭先公</sup>의 서<sup>序</sup>를 기록하고, 이어서 21)《태상은결<sup>太上隱訣</sup>》을 기록했으며 가장 마지막에 사경한 사람의 이름을 남겼다. 《도덕경道德經》은 하상공의 주본 외에 제자의 것 4, 5종류가 더 있지만 그 수가 적다. 그래서 여전히 하상공의 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

셋째, 《사기<sup>史記</sup>》에는 《도덕경道德經》이 오천 자이며, 노자가 오천 자를 쓰고서 옥문관을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후대인 특히 도가에서는 이 말을 근거로 《도덕경道德經》을 반드시 오천 자에 맞추려고 했다. 사실 권자 중 가장 많은 것이 오천삼백 자이고 적은 것은 오천백몇십 자, 가장 적은 것이 사천구백구십구 자이다. 오천 자를 맞추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매우 우스운데, 그들은 어조사, 개사, 지<sup>之</sup>, 호<sup>乎</sup>, 자<sup>者</sup>, 야<sup>也</sup>, 우시<sup>于是</sup>, 연<sup>然而</sup>를 모두 삭제하였다. 그래서 지금 《

20) 곽박<sup>郭璞</sup>을 말한다. 도가에서는 곽선공이라고 부른다.

21) 이 책 역시 소책이다.

《도덕경道德經》을 읽으면 어투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학자들은 전통 책을 읽는 것에 익숙해 읽을 수 없고, 오묘한 느낌이 들며 성조가 부자연스럽고 의미도 통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우스갯소리로 사천구백구십구 자가 된 바에 왜 한 글자를 더해 오천 자를 맞추지는 않았는지 말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글자를 덧붙이면 모든 부분에 추가해야 해서 결국 오천삼백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황 《도덕경道德經》 권자 중에 사천구백구십구 자의 권자를 본다면 하상공의 주본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으며 왕필의 것은 이렇지 않다. 이상 세 가지 점을 통해 우리는 하상공의 주본과 왕필의 주본을 확실히 구별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설명을 보태자면, 당나라 사람들은 《도덕경道德經》을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 그 이유가 황실의 성이 이씨李氏로 스스로 노자의 후손이라 자처했기 때문이다. 비록 도교를 국교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조상으로 삼고 가법家法의 근원으로 삼았다. 돈황 《도덕경道德經》 권자 중 수나라 이전의 사본은 극소수로 대략 한두 개 정도이다. 대다수가 당 대의 사본으로 이는 정치적으로 국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도덕경道德經》 권자의 총수량은 많지 않으며, 나는 거의 모두 조사하였고, 조사한 권자는 대략 20권 정도이다. 연대별로 당현종 시기 이후에는 쓴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덕경道德經》이 돈황에 전해진 기간은 매우 짧아 100년 정도, 아마 100년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도사들의 도교에 대한 학식이나 수양이 깊지 못함이 드러났는데, 이는 도사들은 《도덕경道德經》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도덕경道德經》을 숭배한 것도 국가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다. 황제의 조상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숭배하고 조사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역사가 길지 못했다. 정치적 힘이 사라지면 쇠퇴하고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덕경道德經》 권자는 주로 초당初唐, 중당中唐, 성당盛唐 이 세 시기의 것이다.

나머지 도교경전의 내용은 어떠했을까? 말하자면 《도덕경道德經》《장자莊子》 및 신선가神仙家, 도사方士의 말을 모두 한 데 모아 엮어 도가경전을 만들었다. 심지어 많은 인도 소수 종교의 것도 들어있다. 인도의 소수 종교의 사상은 매우 괴상한데 도교에도 역시나 이런 괴상한 사상이 있다. 소수 종교의 의학은 매우 뛰어나고, 위생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은데, 도가에도 그러한 것이 있다. 현재 도사

道士들이 취했던 사상 중에 우스운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소수 종교에 기원한 것이다. 도교경전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러하다.

돈황 도교 경전권자는 대부분 폴리오가 가져갔고, 북경 도서관에는 거의 없으며, 런던에 소장된 것도 매우 적다. 60, 70건의 권자 모두 파리에 소장 중인데 폴리오의 학식이 매우 깊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도교가 종교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 있었다. 본래 유럽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적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황의 권자를 본적은 없었다. 그러나 폴리오는 이를 보고 놀람을 금치 못하고 전부 프랑스로 가져가 버렸다. 제국주의의 침략은 나쁜 것이지만 그들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도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으니 말이다. 스타인과 오타니고즈이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 학문의 기초가 폴리오만 못했기 때문이다. 폴리오가 가져간 것들은 매우 정교하며, 많은 외국 문자가 적힌 훼손된 권자도 있었으며 지리, 역사를 다룬 권자들도 적지 않게 가져갔다. 여기서 제국주의 침략에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양성하지 못하면 돈황의 문물도 보존할 수 없게 된다.

송 대 태종太宗 때부터 새기기 시작해 《도장道藏》의 일부를 새겼는데, 당 대의 모든 도가경전을 수록했다. 하지만 돈황 경전권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장道藏에 없는 것이 발견되는데 나는 이것을 도교의 일경佚經이라고 하였고 그 수가 10여 권에 달한다.

중국 역사에서 도교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학자도 관심 갖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서江西 용호산龍虎山에 장도릉張道陵이라는 도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있었다. 하지만 용호산에서 그의 흔적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아 낼 수 없었다. 도가역사에 대해서 돈황 경전권자에서는 소수의 자료만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매우 귀한 것이며 중국종교사를 연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이다. 나의 저서 《돈황-위대한 문화의 보고》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외에 도교, 불교, 유교 세 종교는 당 이전에 가장 많이 논쟁을 했다. 당대에 이미 도가의 “삼대인三代人”인 장각張角, 장도릉, 장노張魯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도가경전에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자료가 매우 적어 분

석할 방법이 없다. 단지 반대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서 온 것인지, 누가 쓴 것인지 추측할 방법이 없다. 어떤 이는 스님이 썼을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추측일 뿐이다. 도가에서도 불교를 반대했을 것이고, 불교에서도 도가를 반대했을 것이다. 도가가 불교를 반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만한 것이 없다. 도가의 사원에 삼청전三淸殿이 있는데, 그 곳에는 세 명의 성인이 있다. 그 중간은 노자, 왼쪽은 석가모니, 오른쪽은 공자이다. 이것은 22)노자의 기氣로 인해 이 세 신명으로 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당대에 이미 도가를 반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돈황 권자에서 발견되니 매우 귀한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은 없다.

### 3> 유가경전

유가경전은 돈황 권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불교경전만큼이나 복잡하다. 왜 유가경전이 돈황의 사찰에서 발견되는 것일까? 한무제 때부터 유가만 중시하는 풍조가 시작되었는데 민간에서도 모든 학자가 유가 서적을 보려고 했다. 후한 시대가 되어 인재를 뽑을 때에도 유가경전을 기초로 하였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이런 풍조가 계속 이어졌고, 당 때에는 유가경전이 필독서가 되었다. 후한 시대부터 시작하여 학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유가경전은 《시경詩經》《상서尙書》《논어論語》 그리고 《효경孝經》 등이 있었으며, 후세에 글자를 익히기 위해 《삼자경三字經》과 《백가성百家姓》을 읽었다. 반면 한나라 초기 사람들이 읽은 《고주편古籀篇》과 《창힐편倉頡篇》은 한 글자 한 글자 이해하며 읽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한 편 한 편 읽는 것만 못했다. 글을 한 편 한 편 읽으면 글자를 훨씬 빨리 많이 익힐 수 있다. 그래서 동한東漢 이후에 《논어論語》를 읽는 것으로 그 방법이 바뀌었다. 《논어論語》의 글자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워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서적이 되었다. 《시경詩經》은 암기하기가 쉽고, 사용된 어휘가 많은데, 초목, 새, 짐승, 곤충의 이름이 모두 들어있다. 그리고 《상서尙書》에는 역사 자료가 많다. 중화 민족은 역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세계

22) 老子一氣化三淸노자일기화삼청



각 민족 중에서 역사 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인도 역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처럼 체계적인 역사서는 한 권도 전해지지 않으며, 그들의 역사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서적에 뒤섞여 있다. 반면 중국에는 모든 종류의 역사서가 다 있다. 사건을 기록한 것이며, 사람을 기록한 것, 사물을 기록한 것 등 모두 있다. 중국인의 이러한 습관은 춘추 전국 시대부터 시작했다. 공자는 그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시》를 읽도록 했는데, 23)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말은 사회에서 어느 지위에 오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경詩經》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경詩經》은 유가 교육에 있어 주된 교과서로 《논어論語》에서 《시경詩經》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이 많다. 춘추 전국 시기에 사대부들은 연회에서 《시경詩經》을 자주 인용했는데 이에 《시경詩經》은 유가의 주요 경전이 되었고, 민간에서도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중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애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족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계씨計氏 집안에는 계씨 가문의 족보, 왕씨王氏 집안에는 왕씨 가문의 족보, 강씨姜氏 집안에는 강씨 가문의 족보가 전해졌다. 중국의 족보학은 세계에서 보기 힘든 학문이다. 족보를 다루는데 있어 가장 유명한 곳은 절강지역으로 절강지역의 사람들은 족보를 매우 잘 관리하고 전해왔다. 두 번째는 하남 사람, 세 번째는 사천 사람이다. 그들의 족보에는 어느 집안이 어디에서 왔는지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다. 왕국유 선생 가문의 족보를 예로 들면 “그의 집안은 남송南宋 때 하남 개봉에서 이사를 왔다.” 이와 같이 대대로 기록이 매우 자세하게 남겨져 있다. 현재 우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는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 강씨 가문 족보에 대해 나는 18대 선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명확히 말할 수 있다. 족보학은 중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이다. 육조 시대에는 문벌이 생겼다. 왕씨王氏, 사씨謝氏 가문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여식을 절대 다른 가문으로 시집보내지 않았다. 당 대 황제들은 노씨盧氏 가문의 여자를 부인으로 삼고자 했지만 얻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노씨 가문은 문벌이 높은 가문이었고 이씨 가문과 혼인 맺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문벌제도는 사람들의 독서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람들에게

23) 不學《詩》無以言불학《시》 무이언

유가 서적을 읽도록 하였는데, 이는 유가가 종법사회 아래서 형성되어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서尙書》《시경詩經》《논어論語》를 반드시 읽도록 했다. 이 세 권은 돈황 유가경전의 중심이 되었다. 승려가 불경을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승려들도 위 세 권의 유교경전을 읽었다. 그들은 유가를 숭배했는데 천태종의 지자대사智者大師도 《효경孝經》 일부에 주를 단적이 있다. 그의 주석은 유가의 것보다 훨씬 출중했으며, 그가 언급한 많은 도리는 유가에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 외의 유가경전으로 《춘추경春秋經》의 《좌전左傳》과 《곡량전谷梁傳》이 있고 《공양전公羊傳》은 없다. 《공양전公羊傳》에는 반역사상이 담겨있는데 돈황 권자에는 한 권도 없다. 이는 매우 신기한 일이다. 문헌을 다루는 사람으로써 관련 권자를 찾고 싶으나 파리, 런던, 북경에서 보았던 권자들을 근거로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다. 혹시 누군가 발견하지는 않았을까? 나는 감히 말할 수 없다. 어쨌든 현재까지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다. 《상서尙書》《시경詩經》《논어論語》 다음으로 중요한 경전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다. 이 경전의 기본 자료 예를 들면 책 속의 “子曰”, “詩曰”과 같은 말은 모두 《논어論語》《시경詩經》에 나오는 것들이니 모두 읽을 만하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돈황 권자에서도 분량이 가장 적다. 이 외에 《예기禮記》《주역周易》이 있는데 분량이 많지 않으며 《주역周易》은 《예기禮記》보다 조금 더 많다. 왜냐하면 《주역周易》의 도리가 도가, 불가와도 통하기 때문이다. 불교를 다루는 사람도 《주역周易》이 매우 이치에 맞으며,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강에 마일부馬一孚 선생이라고 있는데 마일부 선생이 사천에서 서원을 부활시킬 때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바로 경전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며 읽도록 한 것이다. 《주역周易》《도덕경道德經》 그리고 《금강경金剛經》 세 권을 함께 읽도록 했다. 훗날 누군가 그에게 《금강경金剛經》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하자 그도 그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금강경金剛經》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역周易》과 《도덕경道德經》은 반드시 함께 읽도록 하였다. 그래서 《주역周易》을 강의했지만 불교도들도 있었고, 심지어 선종禪宗 신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역경易經》의 변화라는 도리는 불교의 윤회사상과 서로 통하고, 음양팔괘陰陽八卦와도 상통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돈황 경전권자에서 유가경전은 《상서尙書》《시경詩經》《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그리고

《논어論語》를 기본으로 하며 기타 경전은 모두 소경이다.

《상서尙書》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읽는 것은 당대 개원천보시대開元天寶時代 이후에 수정된 판본으로 개원천보시대 이전의 권자는 모두 돈황 권자에 보존되어 있다. 당 대 위포衛包라는 사람이 《상서尙書》의 글자를 당나라 실용한자로 수정 변경했고, 현재 읽혀지는 《상서尙書》가 바로 위포가 수정한 것이다. 위포 이전의 《상서尙書》 중에 볼 수 있는 것은 돈황의 권자가 유일하며 다른 것은 없어졌다. 이로써 이 판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한漢 대의 기록이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고대의 주석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판본이 가장 큰 가치를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고대의 많은 자료들은 고대의 주석서에서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고대의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많은 고대 학설을 보존하고 있음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 역시 돈황 유가경전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논어論語》를 예로 들면 현재 우리가 읽는 《논어論語》는 한 종류로 바로 하안何晏이 주석한 것이다. 이것 역시 위진 시대 사람의 주해를 수집한 것이다. 그런데 돈황에서 황간皇侃의 주석도 발견되었는데, 그는 양한兩漢 시대와 위진 시대 사이에 누군가가 강의한 《논어論語》의 요점을 모두 주석서에 수록했다. 이것 역시 중국의 중요한 경전이 되었는데 폴리오가 파리로 가져가버렸다. 당시 나는 왕중민 선생과 파리에서 편목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여관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는데 새벽 한 시쯤 그가 찾아와 보물을 발견했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황간의 《논어論語》 주석서였다. 과거 나는 목록에서만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왕 선생이 도서관 열쇠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찾아보았다. 너무나 기뻐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중국 상무인쇄관로 사진을 부쳐 인화를 요청했다. 물론 출판사에서도 바로 인화해주었다. 장병린 선생과 같이 나이든 선생 몇 분이 이 책을 보고 평생 이렇게 좋은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도 고대 주석서가 있는데 현재 통용되는 것은 두예杜預의 주석서로 돈황의 권자와 비교하면 다른 점이 매우 많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좋은 책일까? 책 전체를 비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어느 부분이 다른지는 비교하고 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황의 유가경전은 매우 귀중하며, 당 대 이전의

고대 주석서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한 대의 주본도 많이 있으나 돈황에는 한 건도 없다. 예를 들어 《시경詩經》도 모씨毛氏의 것 외에 제씨齊氏, 노씨盧氏, 한씨韓氏의 것이 있지만 돈황 권자에는 한 건도 없으며 민간에 전해져 오는 것도 없다. 그래서 비교 할 방법도 평론할 방법도 없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도 주본이 있고, 《곡량전谷梁傳》은 범녕范寧의 주본, 《논어論語》는 황간의 주본이 있지만 다른 것은 없다. 돈황 유가경전의 고대 주석서는 유가경전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자료이다.

이제까지의 얘기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돈황의 모든 유가와 관련된 고대 서적을 현재 전해지는 권자와 대조해봤을 때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된다면 돈황 권자는 모두 고대 주본으로 당 대 이전의 것이며, 현재의 것은 당 대 사람에서 송 대 사람에 거쳐 고쳐진 것이다. 유가경전의 돈황 권자가 귀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우리는 이 권자를 근거로 현재 권자의 옳고 그름과 가감된 내용이 있는지 연구할 수 있다.

2. 서적 내용의 시비를 따지고 가감된 것이 있는지 파악할 때, 내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고대 서적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도가경전 안에 좋지 않은 자료도 많이 있다. 《도덕경道德經》이 오천 자에 맞춰져야한다는 것들도 이러한 예이다. 하지만 유가경전에는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아 당 대 이후에 전해져 오는 고대 서적을 수정할 수 있고 나아가 한 대 사람이 쓴 저서도 모두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경詩經》 《출차出車》편에 “執訊獲丑집신회추”라는 구절이 있는데 적을 붙잡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강성鄭康成의 주본에서는 “執其可言問所獲之衆집기가언문소회지중”라고 되어 있고 의미가 불명확하다. 돈황 권자 중 p.2570에는 “執訊집신킨, 執其可言집기가언, 問及所獲之衆문급소회지중”라고 쓰여 있으며 의미가 더 명확하다. “執訊집신킨”을 한 번 더 쓰고 “及급” 한 글자가 더 추가되어 정강성의 것을 더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단지 이 세 글자의 문제로 보아서 안 되고 전체 문장의 내포된 의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한 권은 《상서尙書》이고, 한 권은 《시경詩經》이다. 나는 이 작업 후 돈황 권자의 장점

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또 예를 들면 《시경詩經·제풍齊風·동방지일東方之日》 현재 판본의 서문에 “刺衰也”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p.2529와 p.2669 두 권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刺襄公也”라고 되어 있다. “衰”와 “襄” 두 글자가 비슷하게 생겨서 후대사람이 “衰”라고 쓰고 난 뒤 나중에 다시 “公”자가 삭제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가 어느 시대의 것인지 불확실해졌다. 나는 이런 성과들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모든 돈황 권자의 유가경전에 담긴 글자가 하나하나 모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유가경전은 돈황 권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